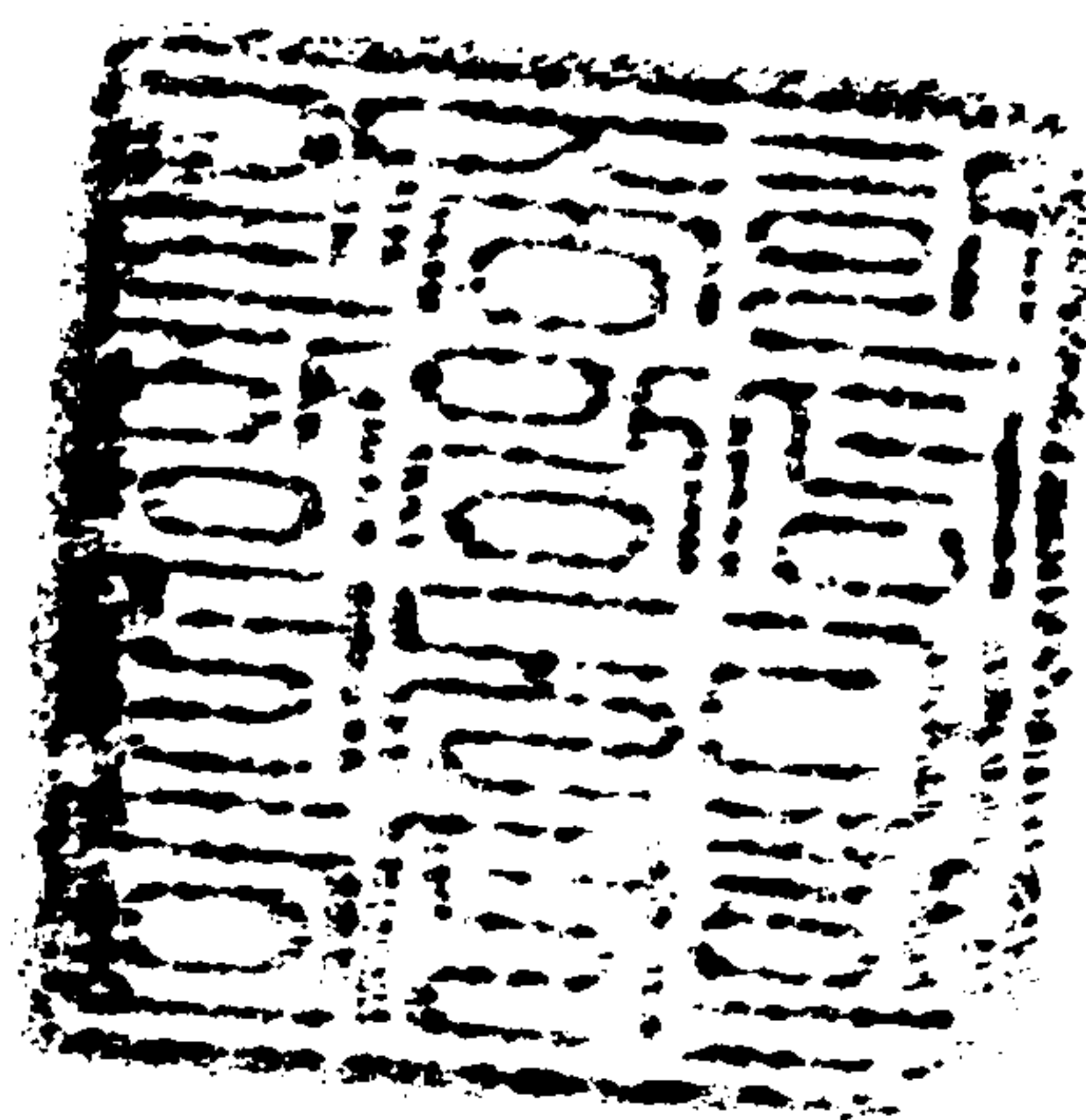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에 關한 研究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金 德 性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成澤

# 中國의 改革· 開放政策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Reform and Open Policy of China >

1993年6月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金 德 性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成澤

#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에 關한 研究

< A Study on the Reform and Open Policy of China >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6月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金 德 性

金徳性の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3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感謝의 글

“大器晩成”이란 생각으로 만학을 고립했던 시간이, 이제 佛家에서 일컫는 “찰라”라는 말로 느끼게 해주는 시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과 대학원을 늦게 수학한 만학도로써 이제 석사학위 수여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열강으로 학문의 심오함과 즐거움을 일깨워주신 교수님께 감사함과 경의를 표하면서 글월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은 또하나의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40이 넘어서야 깨우쳐지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온몸을 전율케 합니다. 주경야독이라고 하지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과 마음의 위안을 주시던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과 열정으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이 영분, 그리고 듬직한 명중, 형중 두 아들 우리가족 모두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미흡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상함으로 지도해주신 정성택, 정주택, 이종수, 황진수 교수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1993年 8月

金 德 性

## 國 文 秒 錄

1976년 9월 毛澤東이 사망한 후, 2년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중국은 1978년 12월 공산당 第十一期 三中全會 이후 개혁정치라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하에서 농업·공업·과학기술 및 국방부문의 4개 현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삼음으로써, 1949년 이후 중국의 낙후된 경제발전을 위하여 생산력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한 성장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개혁노선은 정치·사회·문화 및 대외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의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개혁론자들은 과거 이데올로기와 정책, 제도를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개혁논리를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인 것이다.

그리고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은 「4개 현대화」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건설을 이룩하려하고, 中國式 社會主義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체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노선의 본격적인 추진아래 일어난 농업부문, 공업·기업부문, 및 가격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그리고 유통체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수단에 의한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자신이 독자적으로 경영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업경영자주권의 확대 등이 있으며,

둘째, 정치체제의 개혁은 당과 정부의 업무, 당업무와 기업업무가 적절하

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당·정 분리, 권력을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권력의 지방분산, 당과 정부기구의 개혁 및 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등 당의 개선방안인 간부체제의 개혁이 있으며, 무법천지상태를 개선하여 인민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등이 있다.

셋째, 군부의 개혁에는 중국의 특색을 가진 현대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자는 국방의 현실화의 방향과 강력한 현대화와 정규화의 혁명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군개혁의 실현 등이 있다.

넷째, 중국 개방정책에 있어서는 ① 經濟特區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개발된 深圳經濟特區, 마카오 인접지역에 위치한 15.183km<sup>2</sup>의 珠海經濟特區, 廣東省에 인접한 52.6km<sup>2</sup>의 汕頭經濟特區, 福建省 중부연안에 위치한 13km<sup>2</sup>의 廈門經濟特區가 있으며, 14개의 개방도시 (大連, 秦皇島, 青律, 煙臺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淇江 및 北海와 海南島) 와 珠江 델타, 楊子江 델타, 南廈漳泉 델타, 遼東半島, 山東半島의 5개의 개방구가 있다. ② 외화도입, ③ 무역제도의 개혁 등이 있다.

등소평은 개혁정치 가운데 경제개혁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분배의 불균형 당간부의 부정부패, 실업문제와 사회적불안 등 경제적인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며, 개혁·개방정책은 보수·개혁파세력이 강한제동을 걸면서 급진 개혁파들을 비판·견제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해왔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는 결국 천안문사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趙紫楊을 비롯한 개혁파 다수가 제거 되었으며, 姜澤民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지도체제하에서 민주화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 目 次

第 1 章 序 論 .....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	1
第 2 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4
1. 研究의 範圍 .....	4
2. 研究의 方法 .....	5
第 2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擡頭背景 .....	7
第 1 節 國內的 背景 .....	7
第 2 節 國際的 背景 .....	14
第 3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路線과 方向 .....	21
第 1 節 鄧小平 路線의 確立 .....	21
第 2 節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形成 .....	25
1. 中國式 社會主義 .....	25
2.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形成 .....	29
第 4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展開過程 .....	32
第 1 節 中國의 對內的인 經濟改革 .....	32
1. 農業部門의 改革 .....	32
2. 工業企業部門 .....	34

3.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的 導入 .....	35
4. 流通體系 .....	37
5. 金融制度 .....	38
6. 企業經營自主權의 擴大 .....	41
<b>第 2 節 中國의 對外的인 開放政策 .....</b>	<b>43</b>
1. 中國의 開放政策의 基本戰略 .....	43
2. 經濟特區 .....	45
3. 開放都市와 開放區 .....	49
4. 外資導入 .....	50
5. 貿易制度의 改革 .....	53
<b>第 3 節 中國의 政治體制的 改革 .....</b>	<b>55</b>
1. 黨·政 分離 .....	55
2. 權力의 地方分散 .....	57
3. 黨·政府機構의 改革 .....	58
4. 幹部體制的 改革 .....	60
5. 社會主義 民主와 法制 .....	62
<b>第 4 節 中國의 軍部改革 .....</b>	<b>65</b>
1. 國防現實化의 方向 .....	65
2. 軍事改革의 實現 .....	66
<b>第 5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副作用 및 展望 .....</b>	<b>69</b>
<b>第 1 節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副作用과 天安門事態 .....</b>	<b>69</b>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副作用 .....	69
2. 民主化運動 과 天安門事態 .....	74
第 2 節 中國의 改革·開放政策과 展望 및 韓·中 關係 .....	84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展望 .....	84
2. 韓·中 關係의 懸案과 展望 .....	88
第 6 章 結    論 .....	92
參 考 文 獻 .....	97
A b s t r a c t .....	106

# 表 目 次

< 表 4 - 1 > 經濟特區의 地圖 .....47

< 表 4 - 2 > 中國의 外資導入 趨勢 .....51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研究의 目的

1976년 9월 毛澤東이 사망한 후, 2년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중국은 제 2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政治·經濟·社會·外交·國防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78년 12월 18일 부터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1월 三中全會)를 통해 실권을 장악한 鄧小平은 중국현대화의 깃발아래 이러한 개혁노선에 대한 기초로서, 실용주의 노선에 바탕을 두고 '실사구시'思想을 확고히 했으며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모든 것은 현실적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관점을 세우고, 중국의 실제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鄧小平은 社會主義 現代化建設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經濟建設을 중심으로 하고 生産力 向上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 1982년 9월 中國共產黨 第十二 全大會에서 1987年 10月 第十三 全大會까지 5年 동안은 中國式 社會主義를 제시하고<sup>1)</sup> 現代化도 中國式現代化, 즉 다른 나라의 社會主義 형식을 모방하지 않고 중국실정에 맞는 社會主義를 추진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 10월 당 第十三全大會에서 중국 사회는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에 처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첫째, 중국은 社會主義 사회로, 이러한 社會主義를 꾸준히 지속해야 하며, 둘째, 중국의 社會主

---

1)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 (增訂本), 香港 : 三聯書店, 1987. p.3

義는 여전히 초급단계에 처해있으며,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이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없다<sup>2)</sup>고 했다. 이 시기에 社會主義 기본임무는 생산력 향상이고, 이를 위해선 전면개혁, 대외개방, 상품경제의 발전, 社會主義的 민주정치 및 물질, 정신문명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었다.<sup>3)</sup>

이와 같은 鄧小平의 개혁정치는 중국의 실정을 분석해서 中國式 社會主義 현대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며, 곧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었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第七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2次會議(1989. 3. 20-4.4)에서 개혁속도와 물가 및 임금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지도층내에서 상당한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 그에 따라 개혁방향의 재조정이 시도되고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에 많은 시련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적 욕구와 기대도 상승하여 정치제도와 소유제도를 서구화하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때 맞추어 일고 있는 소련 및 동구의 변화에 자극받은 중국의 학생, 지식인들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발전시켜 갔다. 이러한 요구는 드디어 1989년 6월 4일 천안문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sup>4)</sup>

이러한 의미에서 천안문 사건은 중국정치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분수령

- 
- 2)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1987年, 10月 26日)  
『中國共產黨 第13次 全國 代表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1987.11),  
p. 8
- 3) 鄧蘭蓀, 劉鵬 主編, 「鄧小平的思想理論研究」, (北京: 中國書籍出版社,  
1988.12), pp. 8 - 9
- 4) 천안문 사태(1989.6. 4)의 배경,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hu- Yuan Cheng, OP, Cit. PP.122-145 와 小島朋之, 「歧路に立つ中國」(東京: 聲書房, 1990), pp. 274 - 314 참조

이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李鵬이 이끄는 「보수파」가 안정을 회복했지만 종전과 같이 경직된 공산체제를 부활시키지 못했다.

하여튼 오늘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중국지도층은 社會主義經濟의 개혁과 개방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대세임을 확신하고 새전환의 시대로 맞이하여 이에 관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12월 「七中大會」에서 중국공산당은 20세기 말까지의 10년동안 社會主義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경제개혁이 완만히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10년동안 추구할 5개의 기간노선을 발표하였는데. ① 중국의 특성을 지닌 社會主義 建設을 계속한다. ② 개혁 및 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③ 안정 또는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추구한다. ④ 근면 및 절약을 통한 자립, 강력한 투쟁, 국가건설 등 원칙을 고수한다. ⑤ 물질문명 및 社會主義文化, 倫理의 촉진 등이다.

이와 같이 鄧小平에 의해 추진된 10년 동안의 개혁·개방정책은 확실히 지난 날의 교조주의적이고 경직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本 論文은 첫째, 1978년 12월 「十一期 三中全會」 이후 실행된 중국개혁, 개방정책이 왜 대두되었으며, 그 준비 및 전개과정 그리고 그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개혁, 개방정책의 방향이나 기본적 내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개혁·개방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수반되었기에 천안문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수습책으로써 보수·강경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 넷째, 최근 鄧小平의 유화적 태도(보수파 타협)가 향후 중국 국내정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중국의 공

식자료 및 국내의 번역된 자료 그리고 기존연구물을 원용하여 심도있게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第 2 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1. 研究의 範圍

本 研究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간적 범위로는 鄧小平이 실권을 장악한 1978년 12월 「十一期 三中全會」부터 출발하여 개혁·개방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1992년 12월 「十三期 七中全會」까지로 확정하고 그 사이에서 전개된 내용 및 중국공산주의자들 간의 정치적 쟁점을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중국개혁·개방정책의 형성배경을 국내적인 측면에서 중국공산당 정부수립 이후 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배경의 전개와 국외적인 측면에서의 경제개방에 대한 배경을 알아본다.

제 3 장에서는 중국개혁, 개방정책노선의 방향에 있어서 毛澤東 사후에 전개된 鄧小平路線이 확립되는 과정과 중국의 분위기에 맞는 中國特色的 社會主義의 成立 그리고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형성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오늘날 중국에서 불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 파급되고 있다. 鄧小平에 의해 추진된 80년대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을 크게 보아서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는 농업부문, 공업기업부문, 가격체계, 시장경제의 도입 등이 있으며, 정치체제개혁에 있어서는 당·정분리, 권력의 지방분산,

정부기구의 개혁, 간부체제의 개혁, 社會主義 民主와 法制 등이 있다. 그리고 군부의 개혁과 대외적인 경제개방정책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여 천안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습책을 둘러싸고 보수, 개혁파가 대내외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세웠는지 알아보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연결시켜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本 論文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중국개혁, 개방정책의 변화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 2. 研究의 方法

本 研究는 이같은 分析內容과 關聯하여 取扱하고 있는 資料는 中國측의 입장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 1차 자료 및 문헌을 많이 인용하려고 하였다. 예를들면 북경 인민출판사에서 발행한 「鄧小平門選」(1983년 8월)을 비롯하여 鄧小平의 「現代中國의 基本問題」(北京：外門出版社, 1987년 6월), 「十二代 以來」重要文獻選集(上 中 下)(北京：人民出版社, 1988년 5월), 북경 인민해방군 정치학원 훈련부과연부에서 편한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苦于理論深討」(1985. 8), 「建設有中國特色的 社會主義哲學思考」(北京：中央 中央黨校出版社, 1984年 12月), 중국공산당 중앙문헌 연구실에서 편한 「關於建國以來黨的苦于力士問題的 決意」(1985년 8월) 등과 台北 및 香港에서 간행된 중국관계서와 간행물로서 「人民日報」, 「紅旗」, 「北京週報」, Beijing Review 등의 제 1차자료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설명하는 제 3자의 입장을 표명한

국문·영문·중문으로 된 제 2차자료를 인용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기존의 중국측 자료와 연구성과를 토대로한 문헌연구분석에 의존할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공식문헌의 기술내용에서 논의의 근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第 2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擡頭背景

중국공산당이 정권성립후 추구해온 국가이익은 이념적으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토대로 하여 첫째, 국가안전의 공고화. 둘째, 정치적 통합과 강대국으로서의 발전. 셋째, 영토의 통일. 넷째, 국제무산계급 혁명의 완수, 다섯째, 경제적 현대화 등을 주요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다.<sup>5)</sup>

이러한 기본적 틀 속에서 중국은 社會主義 진영에서 소련을 견제시키고 또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무대 및 제 3 세계 지역에 대한 자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경제적 후진성에서 탈피하고자 「4개 현대화」로 대표되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第 1 節 國內的 背景

중국대륙에서 1949년 공산당정권 창출 이후 毛澤東은 마르크스 이론을 계승하여 일련의 「사회혁명」을 진행시켰다. 그 이론적 기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산관계가 다시는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할 수 없을 때 그것은 곧 반드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毛澤東의 이론에 의하면 중공 성립초기에 「토지개혁」을 거쳐 지주계급 소멸하고 계속해서 「농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한다. 또 민족자산계급을 소

---

5) Joseph Camilleri, *Chinese Foreign Policy : The Maoist Era and its After month*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0) pp. 21 - 26

6) 毛澤東, "矛盾論"(1937.8), 「毛澤東 著作 選讀」, 上冊(北京 : 人民出版社, 1986), p.170

떨하여 「私營 工商業의 社會主義 改造」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에 있어서 社會主義 공업화와 농업·수공업·개인상공업 등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1953년, 즉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시작된 제 1 차 5개년 계획(1953 ~ 1957)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54년 7월 5~6일 李富春은 「제 1 차 5개년 계획에 관한 보고」에서 毛澤東이 예견한 바와 같이 이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건국 후 부흥기 3년을 제외하고는 대략 15년 전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

그러나 15년을 예정했던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李富春의 '보고'가 채택된 후 불과 1년 반만에, 즉 1956년 말까지에 거의 완료되었다. 농촌의 경우 토지개혁법(1958)에 따라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했던 토지는 농민들의 자유의사로 農村互助組-初級生產合作社 (협동조합)를 거쳐 고급생산합작사로 시간을 두고 3단계로 나누어 재편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초급단계는 성급하게 곧장 고급단계로의 이행이 강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래의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농업집단화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권에 의하여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1955년 3월21일 毛澤東은 “대략 세차례의 5개년계획 기간내에 나라를 기본적으로 공업화하고 농업·수공업·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며, 수십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자본주의 나라를 따라잡고 이에 앞선다.”8)는 웅대한 목표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업화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중앙집권화계획을 추구하는 스탈린 전략 모델이었다. 이 스탈린 전략은 제 2차대전에서 열세에 있던 소련을 제

7) 岡部達味, 「中國近代化の政治經濟學」, (東京: PHP研究所, 1989), pp 41 - 49

8) '在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上的講和', 「毛澤東選集」, 第 5卷(北京:人民出版社, 1977). p.141.

2의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확고한 사회주의건설 모델이었다.

이 스탈린모델의 골간은 자본재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강행함으로써 중공업분야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있었다. 또한 이 모델은 모든 경제분야에서 달성할 생산목표와 생산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도록 하였다.<sup>9)</sup> 이 모델은 농업분야에도 적용되어 농업생산의 근본구조를 변혁시켜 농업생산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중국은 1957년 제 1차 5개년계획이 완수되었을 때 중국 경제성장이 연평균 8.9% 정도로 중국의 국민경제는 전반적으로 고도성장을 하였다.<sup>10)</sup> 그 밖에 제 1차 5개년 계획은 교육과 국민의 보건위생에도 꾸준한 투자를 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sup>11)</sup>

그러나 제1차 5개년 계획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200억 달러의 재정부담.

둘째, 농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저축을 강요.

셋째, 중공업분야에 과도한 집중투자로 인한 농업·정공업·소비품 산업이 희생됨.

넷째, 이 모델은 목표달성을 위해 강력한 관료구조의 발전과 고도의 중앙집권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

다섯째, 이 모델의 계획과 수행은 전문관료, 기술자, 공장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에 중국을 社會主義 공업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준이 낮고 전통적 사고를 가진 농민들을 정치화 시킬 필요성이 중요치 않게

---

9) Franklin Houn, *A Short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Inc, 1967) pp. 178 - 179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 필승, 윤정분 역, 이 덕빈,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사 (I) 2, (서울: 교보문고, 1989), pp. 250 - 256 참조.

11) 상계서, P. 256.

되었다는 점이다.<sup>12)</sup>

그래서 毛澤東과 중국지도자들은 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중국의 환경과 요구에 적합한 社會主義 경제모델을 개발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약진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약진운동의 中心思想은 중국의 풍부한 자원인 인력을 자본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중국은 공산혁명을 위해 군중을 동원하였던 방법과 똑같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위해 군중의 창의적인 열성을 동원하는 군중동원 전략<sup>13)</sup>이다.

이 대약진운동은 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기에 중국경제를 현대경제(자본집약과 대규모생산)와 전통적경제(노동집약과 소규모 생산)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양면전술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대약진운동기간의 선전구호인 「두다리로 걷기운동」구호하에 농업과 공업의 동시발전을 지향하는 자력갱생이라는 것에서<sup>14)</sup>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毛澤東의 동시발전모델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목표 달성의 과도한 열성 등이 존재하고 있다. 부과된 목표량을 달성하려는 노력에서 노동자들은 생산량만 중요시하게 되어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up>15)</sup>

---

12) 이문규, 「현대중국정치론」, (서울:인간사랑,1988), p.32

13) Maurice Meisner , *Mao's China*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p.217

14) Roderick MacLiarquha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I :*

*Contradictions among The people 1956-1957*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P. 57- 74

15) Byung - Joon Ahn,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

*Dynamics of policy Processes*(Seattle and Washington, and 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p.31 -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협작사가 인민공사가 개조됨으로써 대약진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인민공사는 본질적으로 협작사보다는 더 큰 규모로 농업생산을 집단화시키는 방법이다. 즉 인민공사는 지방정부와 같은 것으로 농업, 공업, 교육복지, 보건위생, 공공사업, 군사방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농기구, 농사짓는 짐승, 가옥, 협작사에 출자분도 모두 인민공사에 헌납하여 공동소유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농민들은 인민공사의 일원이 되었고 여기서 그들은 집단소유제(집단생활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대신 농민들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교육 등 5가지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가 인민공사라고 보았다.<sup>16)</sup>

그러나 인민공사는 그 급진적인 실험이 첫해부터 공산주의로 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었다. 인민공사운동이 전개되면서 농민들은 계속 중노동에 혹사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집단화로 가정이 사실상 소멸되어, 생활의욕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식량이 낭비와 함께 농민들이 전반적인 건강마저도 악화되었다.<sup>17)</sup>

더더구나 3년 간이나 계속된 자연재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대홍작이 연속됨으로써 중국은 건국후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어 毛澤東의 대약진운동과 그 일환인 인민공사제도는 60년에 와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sup>18)</sup>

대약진의 실패는 중국지도자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개발전략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열은 나중에 「紅」(red)과 「專」(expert)의 논쟁으로 대두되었다.

16) 이문규, 「현대 중국 정치론」, pp. 34 - 95

17) 김하룡, 「중국 문화 혁명 연구」, (서울: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5), P.97

18) 鄧小平, 「政治上 發展民主, 經濟上 實行改革」(1985. 4.15), 鄧小平, 「現代中國의 基本問題について」(北京: 外交出版社, 1987), pp.187-196

이리하여 중국은 경제위기를 구제하기 위하여 劉少奇,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專」의 세력은 1960년말에 경제조정방안을 제정, 공포하여 1961년 부터 실시했다.

그 정책의 기본은 농업을 국민경제의 기초로 삼고 공업을 주로 삼는 것이다.

1962년 周恩來는 금후 중국대륙 발전속도는 양식 및 공업원료의 상품증가를 상황에 의거해야 한다고 공개 선언했다.<sup>19)</sup> 그리하여 공업기본건설투자가 40%나 하강하여 모든 경제가 전면 수축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sup>20)</sup>

그러나 중국의 경제정책 속에는 항상 毛澤東의 思想과 노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毛澤東은 노동인민의 정치각오 및 무산계급이 계급의식을 제고하고 인민의 혁명열정을 고무하여 생산효율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抓革命 促生產」(혁명을 쥐고 생산을 촉진한다), 「政治掛帥」(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등의 구호를 제출하여 「문화대혁명」을 위한 기본노선을 설정했던 것이다.<sup>21)</sup> 문화대혁명이 발동되었을 때는 이미 경제조정정책이 성과를 거둔 후였다. 그 당시 周恩來 수상은 1964년에 이제야 경제회복이 끝났으므로 제 3차 5개년계획을 1966년 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선언하던 때였다. 그러나 그 경제계획의 시행은 「文革」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sup>22)</sup> 1972년 하반기에 와서는 이 경제정책의 폐단과 반감이 점차 폭로되기

---

19) 紅과 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紅->사상, 혁명열정, 이념중시, 정치중시(모택동, 임호)

專->기술, 능력, 업적중시, 과학기술, 전문성중시, 합리성중시, 경제중시  
(유기소, 동소평)

20) 周恩來, 「國民經濟的 調整工作和 當前任務」(1962. 3. 28), 「周恩來 選集」, 下卷  
(上海: 人民出版社, 1984), pp. 370- 387참조.

21) 鄭竹園, 「中共經濟的 診斷」, (台北: 聯合出版社業公司, 1980), p. 16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첫째로, 政治思想의 전진정도가 혁명 열의로써 노동보수의 표준으로 평정했기 때문에 노동인민의 격렬한 비판을 초래했다. 둘째로, 지방소형공업이 가져온 곤란성은 설비도 모자라고 생산품은 미세하여 이미 자원낭비를 가져왔던 것이다.<sup>23)</sup>

결국 10년동안의 문화대혁명(1966-1976)은 중국의정치, 경제발전의 과정을 방해하였고, 국가의 정치제도의 형태와 권위를 손상시켰고, 또한 장기간이 경제불황을 초래하였으며,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인 긴장과 사회집단과 국가사이의 분쟁을 강화시켰으며, 공적인 이데올로기와 정통성을 손상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文革 이후의 중국 개혁지도부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외국의 기술과 자본투자를 획득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자국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대외개방정책을 취하는 것이 곧 중국의 발전적 대안 전략이라고 생각했다.<sup>24)</sup>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문화 대혁명 이후의 신 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

22) 高向果, 「中共經濟」, (臺北: 正中書局, 1987) pp. 115- 124

23) 高向果, 「中共 經濟問題論集」, (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84), p. 40

24) 高向果, 「中共經濟」, PP. 128 - 136

## 第 2 節 國際的 背景

모든 국가는 국력의 대소를 불문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독립과 영토주권을 확보하여 그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정책의 제 1 목표는 우선 정권의 존재를 보호·유지하고 그러한 연후에 다시 그것이 역량지위를 증진하는 것이다.

하아딩(Harry Harding)은 중국 대외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패권주의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둘째, 탈 식민지화 과정에 대한 지원과 식민주의 잔재거부, 셋째, 주권 및 독립권 보존, 넷째, 자력에 의한 경제력, 군사력 발전 추구, 다섯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의 입각한 급진적 세력에 대한 지지 및 상호간이 평화공존추구 등이다.<sup>25)</sup>

이와 같은 분석을 살펴볼 때 중국의 대외정책은 毛澤東의 이데올로기에서 온 것이다. 毛澤東의 外交思想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결합에서 나타난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 요소가 가미된 외교정책이다.<sup>26)</sup>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1949년 부터 시작된 초기의 대외정책은 「대소 일변도」 외교노선을 걸어 왔다. 즉 1949년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배후 지지와 공개성원에 의지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해 왔다. 그것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공산당집단의 지원을 얻기 쉽도록 毛澤東은 중국과 소련의 역사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sup>27)</sup>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 정권 성립전에 소

---

25) Harry Harding,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March - April 1983) pp. 1 - 2

26) Robert C. North, *the Foreign Relations of China*(Encino, CA: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1974)p.1

27) 尹慶耀, 「中共外交與對外關係」, (台北: 中華民國國際關係研究所, 1973),

련을 정치외교 및 경제 각 방면에 전력을 다하여 지원을 해 주었다. 중국정권이 정식으로 성립된 날 바로 소련은 외교승인을 하고 각국도 즉각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중국이 국제상 고립을 면하게끔 해주었다.<sup>28)</sup>

1949년 12월에는 毛澤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2개월이 넘는 협상끝에 마침내 다음해인 1950년 2월 4일 「中·蘇 友好同盟 相互援助條約」과 거기에 부수되는 3개의 협상을 체결하였다.<sup>29)</sup> 동시에 중국은 3억 달러의 차관을 얻어 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對蘇一邊倒 政策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中·蘇 友好同盟 相互援助條約」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한 목적은 경제적인 것 보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것이다. 일단 중국이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군사상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상에 있어서 상당한 보장을 획득할 수 있다. 정치상에서도 중국의 국제지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정권 성립초기에는 그 국제관계 발전의 상황은 아주 순조로웠고 毛澤東의 외교정책은 유효적절하게 이용이 되어 비공산국가와도 국교를 맺게 하였다.<sup>30)</sup> 그 반면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었다. 당시중국은 對蘇一邊倒 政策을 대응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거절을 표시했다.<sup>31)</sup>

---

pp. 24-25

28) 高向果, 「中共對外關係的發展」, (台北: 正中書局, 1978), pp. 3-5

29) 김 하룡, 「중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4), pp. 368-369

여기서 3개의 협정이란 ①중국이 소련의 위성국인 몽고인민공화국의 독립인정을 승인할 것을 규명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중국에게는 불과한 협정이다. ② 장춘 철도, 여순항 및 대연을 중국에 반환하고, 1945년 8월 소련이 국민당 정부와 체결한 중. 소 조약의 폐기를 규정한 협정이고, ③ 반주에서 소련의 경제기관이 일본인에게서 취득한 재산 및 재북경구군 구건물의 구상양도, 중국에 대한 차관 공여에 대한 협정 등을 말한다.

30) 상계서, p. 68

그러나 미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신중을 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유리한 반응을 얻기를 희망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때론시일내에 대만의 중화민국정부를 탈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여부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4년 10월 말에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대만해협에 있는 국민당정부의 섬(澎湖列島)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에<sup>32)</sup> 중국정부는 1955년 1월 14일 미국의 在大陸外交官 및 領事를 전부 철수하도록 했다.<sup>33)</sup>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하여 미국과 세계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꾸게 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봉쇄정책을 집행하여<sup>34)</sup>, 한편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또 한편으로 비교적 강력한 정책을 채용하여 중국공산당정권의 기초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 때부터 20년에 걸친 양국간의 공개적인 적대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중화민국에서 생긴 새로운 위기적 상황속에서 1954년 12월 2일 中華民國과「상호 방위조약」을 조인했는데 그 속에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분명히 밝혔다.<sup>35)</sup>

그리고 북한이 남침 후 미국은 즉각 미군을 파견하여 한국전에 참가한 것에 대하여 모스크바와 북경의 시각에서는 예상밖의 일로서 더욱 더 큰 충격을 받았다.<sup>36)</sup> 나중에 중국의용군이 한국전에 참가하였는데 모스크바 쪽은 미군의 군사개입에 대해서 전체 혹은 위협적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

31) 정 상구, 「현대 중국의정치와 외교」, (서울 : 내외신서, 1990), p. 117.

32) 이문규, 전계서, p. 282.

33) 關中, 「美國外交 與對華 政策」, (台北 : 幼獅 文化事業公司, 1977), p. 2

34) 상계서, p. 4

35) 백 경남, 「국제관계사」, (서울 : 법문사, 1987), p. 256

36) 陳寧生 譯, 「赤色中國報告書」, Anthony, Kubek, The Red China Papers (台北: 黎明文化社業公司, 1976年), p. 142

나라 중국의용군의 참전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않아 중국의 감정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sup>37)</sup>

이 밖에 중국의용군이 한국전에 참가한 것을 제외하고 또다시 중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毛澤東은 1949년 11월에 胡志明에게 전보를 쳐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적극지지하고 일체의 필요한 원조를 해주겠다고 표시했다. 胡志明은 毛澤東의 강력한 지원하에 드디어 프랑스와 대립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50년 2월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sup>38)</sup> 이 때부터 중국이 국제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고 외교와 경제 각 방면에 걸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후루시초프가 등장한 소련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불신감을 자아내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미국과의 「평화공존정책」을 모색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짐은 毛澤東을 위시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소련에 회의와 불신감을 크게 고조시켰다. 그러나 북경의 지도자들은 신중하였다. 우선 親蘇는 여전히 기본으로 삼고 중립국진영으로 외교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대중립국 외교정책은 1954년 6월 28일 주은래 수상의 인도, 버마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그 곳에서 「평화공존 5항 원칙」, 즉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을 제출했다.<sup>39)</sup>

37) 高向果, 「中共對外關係的 發展」, pp. 6- 8

38) 정 상 구, 「현대중국의 정치와 외교」, p. 119 이것 때문에 중국은 UN이라는 국제 정치무대에 등장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 공산국가를 위시한 모든 나라로 부터 기피대상 국가로 낙인 찍힘으로써 외교 진출의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다.

39) 「周恩來 選集」 下券, p. 118, 1953년 12월31일 부터 1954년 4월 29일 까지 중국 정부대표단과 인도정부대표단이 중국서장 지방에 대한 양국 관계 문제를 놓고 북경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때 주 은래가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회담의

그 후 周恩來는 1955년 4월 18일-24일 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제 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도 「평화공존 5항 원칙」을 제출하고,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중국외교는 아시아·아프리카 여러나라에 새로운 이상을 심어 줌으로써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대중립국외교의 강화는 신생 후진국가에서 일고있는 반제,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고 주도함에 의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를 포위, 고립화 시키는데 있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기간에 소위 「중간지대론」의 대외정책은 한편으로는 「평화공존」을 제창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민전쟁」을 추진하여, 마침내 제 3세계에서의 외교실패를 초래하여 국제사회에서 더욱 더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sup>40)</sup>

한편, 1960년대에 들어서 중·소간의 이념분쟁이 극렬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1960년 4월16일 중국공산당기관지 「紅旗」紙에 (레닌주의 만세 레닌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하여 후루시초프의 평화공존을 통렬히 비난하였다.<sup>41)</sup>

소련은 이에 격분하여 同年 7월 8월 사이에 그간 중국에 파견했던 소련인 과학자와 기술자를 전원 철수시킴과<sup>42)</sup> 동시에 1957년 체결했던 「국방신기술 원조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시켜 중국측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sup>43)</sup>

---

결정인 「關於 中國西藏 地方和印度之間 通達和交通的 協定」의 序言에 정식으로 수록되었다.

40) 김 하룡, 「중국정치론」, pp. 375 - 376

41) 尹 慶燾 「中國外交與 對外關係」, pp. 32- 36

42) 이 때에 약 11,000명의 소련 기술자가 파견되어 기술지도를 해 주었고 약 25,000명의 중국인의 기술교육과 훈련을 위해 소련에 파견되었다. 高向果, 「中共經濟」, p. 15

또한 1959년 9월에 일어난 中·印國境紛爭에 대해 소련이 인도측의 주장을 두둔, 이어서 1962년에 일어난 쿠바 미사일사건을 둘러싼 중·소간의 이견등으로 양국간의 대립은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이익이 동맹국인 소련에 의해 침해당하자 중국은 대소 독립과 자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과제로서 안보의 자주화를 표방하게 되었다.

그 후 소련은 계속해서 대미 공존 정책을 유지하였고 나아가 중국의 반발과 비난에 대한 보복이 나타남에 따라 중국으로 하여금 자칭 社會主義 국가의 일원으로서 서구 자본주의 세력에 대항함은 물론 소련의 수정주의로 반대하는 양면전략의 노선을 채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외교 부재의 시기를 야기시켰다.

문화대혁명은 표면적으로는 당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사회내에 부르조아적인 요소를 정화한다는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앞서 지적한 미·소등 대외적 위협의 증대와 중국내의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의해 실추된 정치권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sup>44)</sup>

이 기간은 중국외교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革命造反外交」의 시기였으며<sup>45)</sup>, 국내정치 혼란속에서 중국의 대내적 불만의 대외적 표출은 중·소간의

43) 이 때에 약 11,000명의 소련기술자가 파견되어 기술지도를 해 주었고 약 25,000명의 중국인이 기술교육과 훈련을 위해 소련에 파견되었다. 高向果, 「中共經濟」 p. 15

44) 김 호길, 「중공 문화대혁명의 발단배경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제6집(부산외국어 대학, '1988.2), pp. 52 - 53

45) Kenneth Libenthal,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Harry Harding eds,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84), P. 51

갈등을 더욱 더 고정시켜 결과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조성했던 것이다.<sup>46)</sup>

이러한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나타난 「개혁·개방외교」는 무엇보다도 중·소 관계가 심각한 국가이익의 충돌로 비화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자주주의식이 발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Henry A. Kissinger)의 첫 중국 방문 이후 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적 구조는 단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중국은 소련의 군사위협은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강력한 견제세력과의 연합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미국을 항소연합 세력의 파트너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7)</sup> 이와 같은 중국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는 급기야 닉슨 미국대통령의 북경방문(1972. 2. 21)으로 미·중 접근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2월 28일 중국 상해에서 '미·중 공동성명'을 통한 미·중국 「데탕트」(detente)가 박차를 가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sup>48)</sup>

이러한 국제정치적 분위기는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시켜 주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풍부한 천연, 인적자원을 향유하고 있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서방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급속히 무역을 확대하는데 필수적인 외부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촉진시킨 요인인 것이다.

---

그리고 김 호길, "중공문화대혁명의 발단배경에 관한 연구" 「외대는총」, 제6집 (부산외국어대학, 1988.2 )참조

46) 서울대 국제문제 연구소 편, 「중국정치경제사전」, (서울 : 민음사, 1990), p. 337 - 338

47) 김 하룡, 「중국 정치론」, p. 401

48) 안 병준, 「중공 정치외교론」, (서울 : 박영사, 1986), pp. 312 - 314

## 第 3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路線과 方向

### 第 1 節 鄧小平 路線의 確立

소위 「路線」<sup>49)</sup>이란 社會主義 국가에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치노선을 가르킨다. 그러나 정치노선은 사상노선을 기초로 삼고 조직노선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위 「노선문제」는 실제상 그 사상노선, 정치노선, 조직노선 3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같이 「鄧小平 路線」은 당의 사상노선, 정치노선, 조직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思想路線」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思想을 가르키고 「政治路線」은 社會主義 현대화, 통일, 반페권주의와 세계평화로 구성되는 3대임무 그리고 구조개혁, 간부 4화 (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社會主義 정치 문화. 범죄타파로 구성되는 4항 보장을 가르킨다. 그리고 「組織路線」은 十二全大會(1982)의 정치노선의 보장, 노령 간부의 교체, 권력집중의 방지, 체제 개편에 관한 것이다.<sup>50)</sup>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鄧小平 路線」은 1978년 12월에 열린 「十一期三中全會」에서 당 중앙의 주도권을 쟁취하여 「十一全大會」의 정치노선을 바꾸었고 이로부터 시작하여 「四中全會」를 거쳐 「十一全大會」의 사상노선을 바꾸었으며, 「五中大會」는 「十一全大會」의 조직노선을 바꾸어 「六中

49) 「路線」이란 용어는 문화대혁명의 기간동안 두계급사이의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총노선, 당노선 및 군중노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50) 郝致誠, “中共「十二大」路線述評”, 「非情月報」, 第二十卷第四期(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所, .1982, 10). pp. 25-29

全會」에 이르러 비로소 전면 탈권이 완성되어<sup>51)</sup> 그후 「十二全大會」에서 「鄧小平, 胡耀邦, 趙紫楊」 3두체제를 탄생시켜 「鄧小平 路線」의 집행을 보장 받았다.

중국은 본래 鄧小平 路線이 없었다. 그러나 鄧小平과 華國鋒의 권력투쟁 중, 鄧小平 路線이 형성되었다. 그것이 바로 「4개 현대화」이다. 「4개현대화」는 「개혁과 개방」으로 압축할 수 있다.

「4개 현대화」계획의 제일 제창자는 바로 周恩來이다. 그러나 그는 1964년 12월에 열린 「第三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4개 현대화」를 제출하여 「금세기 내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社會主義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sup>52)</sup>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周의 「4개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구상은 곧 「문화 대혁명」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현할 수가 없었다.

「文革」 10년 동란 후, 1975년 1월 「4期 全人代」에서 周恩來는 정부공작 보고 중에서 다시 「4개 현대화」계획을 제출했으나, 「四人幫」에 의해서 그것은 경제발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수정주의적인 「唯生產力論」<sup>53)</sup>이며, 과거 부르조아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던 「工業救國論」과 「科學救國論」을 부활시

---

51) 蔡寧遠, “中共的 政治改革”, 「匪情月報」, 第二十五 卷, 第九期 (1983.3), p. 82

52) 周恩來, “發展國民經濟的 主要任務”, (1964.12.21), 「周恩來選集」 下卷(上海: 人民出版社, 1984), p. 439.

53) 李天民, “鄧小平論”, 「第七屆中 : 日中國大陸問題研討會 專輯」 (台北: 政治大國際關係研究所, 1979), p. 4

여기서 「唯生產力論」은 모택동이 文革 중에 반혁명이론이라고 규정한 유소기의 죄상증의 하나이다. 그 내용은 계급적 모순이 인류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부정하며, 생산관계의 생산력에 대한 그리고 상층구조의 경제 기초에 대한 반작용을 부인하고, 생산력(주로 생산도구와 기술)의 발전만이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킨 것이라고 공격받아 외면당했다. 그래서 「4개 현대화」계획은 周의 노선을 만들 수 없었다.

華國鋒도 1978년 2월에 개최된 第五期 全人代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4개 현대화」정책을 정식으로 언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4개 현대화」속에는 毛澤東 교조를 삽입하여 革命化統帥現代化(社會主義 현대화의 실현은 혁명화가 현대화를 선도해야 한다)를 고창했다. 鄧小平은 그의 「실사구시」 사상으로서 경제 규율에 따라 현대화를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이 제출한 4개현대화의 내용을 보면

周恩來가 1964년 12월 「三期 全人代」 제 1차회의의 시정보고중 「금세기 내에 社會主義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2단계 구상을 제출했는데, 1단계는 (1966-1980)는 15년의 기간을 사용하여 1980년 이전에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체계를 건설하고, 제 2단계(1981-2000)는 금세기 내에 농업, 공업, 국방과 과학기술, 현대화를 실현하여 국민경제로 하여금 세계선진강국과 같은 위치로 만들게 하겠다.<sup>54)</sup>

이것이 중국이 제 1차로 제출한 금세기 내에 「4개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대망이다. 그러나 1975년 1월 주은래는 四期 全人代 제 1차회의 시정보고속에서 다시 제출한 「4개 현대화」계획 중, 제 2단계는 바꾸지 않았고 제 1단계 구상은 바꾸었다.

첫째는 15년간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완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완성 시한 1980년을 1985년으로 늦추어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1976년 1월周恩來의 사망, 그리고 동년 9월 毛澤東의 사망으로 이 계획은 실천하지 못했다. 그후 동년 9월 毛澤東의 사망으로 이 계획은 실천하지 못

---

54) 周恩來, 전게서.p. 441

했다. 그 후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신봉하는 鄧小平이 복권 (1977. 7. 23.)되면서 이 계획은 구체화 될 수 있었다. 鄧小平이 복권된 후 화국붕은 1978년 2월 第五期 全人代 제 1차회의의 보고에서 급세기 내에 「4개 현대화」목표를 달성하는 10개년 계획(1975-1985) 및 「23개년 구상」(1976-1999)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면서<sup>55)</sup>, 실질적으로 개혁, 개방정책노선의 추구가 시작되었다.

1979년 당시 鄧小平은 복권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국붕과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8년 5월 11일 내세운 「진리표준」문제를 시발로 하여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부터 華의 노선에 대하여 이견을 표면화시켰다.

우선 1978년 5월11일자 光明日報에「실천이 질리를 검증하는 유일의 기준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는 것 시발점으로 하여<sup>56)</sup> 人民日報 6월 16일자에 “關於真理的 標準問題”가 거론됨으로써 鄧小平과 화국붕 쌍방간에 이데올로기 논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57)</sup>

1978년 6월 2일에 열린「전군 정치 공작회의」에서 鄧小平은 또 이 문제를 제출하여<sup>58)</sup> 중국 각지와 모든 여론도 「毛澤東 思想」의 진리표준 문제의 검

55) Richard Baum, ed, *China's Four Modernizations : The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Colorado : Westview Press, 1980), p.21

56) 이구호가 처음으로 광명일보에 등장하였는데 등소평은 「전국과학대회」(1978.3.18)의 개막 연설에서 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실권은 진리검증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재전국과학대회개막식상적 강화 (1978.3.18)“ 「등소평 문선」 PP.87- 88. 참조, 한편 화국붕은 「전국과학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현대화의 비결은 정확한 노선에 있으며, 대중의 열의와 단결된 힘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등소평은 실사구시에 의해 정치우선, 紅 우선의 경향은 지양되어야 하고 전 중심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화국붕의 연설내용은 「인민일보」, 1978년 3월24일 참조.

57) 김하룡, 「중국정치론」, PP.116 - 119 참조

58) 1978년 6월 2일 등소평은 한 연설을 통해 “실사구시는 모택동 사상의 출발점이

토를 열렬히 불러일으켜 「十一期 三中全會」에 이르러 중국 중앙은 정식으로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가 사상 해방의 기본방침이라고 확인하였다.<sup>59)</sup> 사실 「三中全會」는 「鄧小平 路線」의 승리를 확인하는 최초의 공식적 회합이며, 鄧小平 개혁, 개방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三中全會」를 계기로 사상해방, 체제개혁, 문화개방정책으로 이어지는 鄧小平 路線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 第 2 節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形成

### 1. 中國式 社會主義

1978년 12월 第十一期 三中全會 이후 실권을 장악하게 된 鄧小平등의 개혁파는 社會主義 現代化建設을 역설하면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경제개혁정책과 毛澤東 思想의 해석을 둘러싸고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자, 鄧小平 體制는 개혁노선에 대한 이론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60)</sup>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속에서 鄧小平 체제의 개혁파의 그들이 추구하는 제 개혁을 “中國式 社會主義(中國 特色的 社會主義)”라고 표현하고 있다.

---

고 그의 사상의근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이 실제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론과 정책이 정확자의 여부는 오직 실천 속에서만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在全軍政治工作會議上的 相和“鄧小平文選」, PP.108 - 120 .

59) 「人民日報」, 1978년 10월10일, 사실 진리표준문제는 「十一期 三中全會」의 주요보고였다. 이에 대해서는 「鄧小平 文選」, PP.130 - 143참조.

60) 강지한, “중공의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평화연구」,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제12집, 1987. 12. P.179

鄧小平은 1979년 3월의 한 연설에서 과거 毛澤東의 중국혁명이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듯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것도 중국의 상황에 적합하여야 하고 독특한 중국식의 현대화 노선을 만들어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1)</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毛澤東도 계속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의 구체적 중국실제와의 결부를 통해 중국혁명을 성공시켜야 하고, 모든 표현은 중국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毛澤東의 논리는 1945년 6월 제7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당장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이론과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결부시켜 중국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毛澤東 思想으로 공식화시켰다.<sup>62)</sup>

鄧小平 체제는 1981년 “역사결의”를 통해서 1950년대 말 이후의 삼면홍기 운동, 1960년대 후반부터의 문화대혁명에 있어서 毛澤東의 路線을 비난 공격함으로써 毛澤東 思想을 격하하고 비판하면서도 毛澤東 思想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결합한 사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63)</sup> 이와 같이 鄧小平 體制는 毛澤東의 思想을 비판하되 완전한 부정은 행하지 않으면서 毛澤東과 같은 논리로서 “中國式 社會主義”를 주장하고 있다.

「人民日報」 1984년 12월 7일자에 실린 내용을 보면

- 
- 61) 동소평, “四ての基本原則れ堅しよう”, 「鄧小平は語る」 上巻, PP.210- 241  
 62) 김하룡,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적 사회주의”, 「아세아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88.7. P.74  
 63) “모택동 동지를 주축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중국에 독특한 혁명경험을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론적으로 종합하였다. 이 종합이 바로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결합한 모택동사상이다.” 邦須賢一(外), 한겨레 편집부(엮음), “건국이래 당의 약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1987. 6.27)PP.250- 251

“마르크스가 죽은지 백년이 지났다. 그의 저작은 백년전에 쓴 것이고 그 후에 상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의 생각이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경험하지 못했고 레닌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그들은 이 문제와는 멀리 유리되어 있다. 마르크스, 레닌 당시의 저작으로 우리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sup>64)</sup> 고 하였으며

「人民日報」, 1985년 2월 1일자에 실린 내용에서는

“마르크스가 모든 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마르크스의 올바른 기본원리도 시대에 따라서는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논하였다.”<sup>65)</sup>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그들이 겪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당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맹목적인 적용을 경계하고 현실과 결부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鄧小平 體制는 계속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적 실제와의 결부에 의한 中國式 社會主義의 건설을 역설해 왔는데, 중국의 실체는 어떠한 것이며, 중국의 당면과제 및 현재 중국의 모순됨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毛澤東은 社會主義制度가 이미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생산수단 소유제의 개선의 면에서 근본적으로 승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상, 이데올로기의 면에서 무산계급, 자산계급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승리가 확정지어

64) 「人民日報」, 1984. 12. 7일자

65) 「人民日報」, 1985. 2. 1일자

지는 문제라고 보았다.<sup>66)</sup> 그래서 毛澤東은 1950년대 初半의 三反, 五反運動과 지식분자의 사상개조운동, 1950년대 후반의 반좌파 투쟁, 60년대 초반의 社會主義 教育 運動, 1965년말 부터의 문화대혁명의 전개 등 여러차례에 걸쳐서 정치·사상·문화 영역에 계급투쟁의 정풍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sup>67)</sup>

鄧小平體制는 '역사결의'에서 현재 중국에 있어서의 주요 모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68)</sup>

“社會主義的 改造가 기본적으로 완성을 본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주요 모순은 인민의 점증하는 물질,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생산의 후진성 사이의 모순이다. 당과 정부공작의 중점이 경제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現代化를 옮겨지고, 인민의 물질, 문화적 생활이 생산력의 급속한 증대에 의해 점차 개선될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주요모순은 계급투쟁이 아닌 인민의 욕구와 사회생산력의 낙후사이의 모순이므로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실체는 생산력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있게 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실제 속에서 鄧小平 體制는 경제체제의 개혁이 '中國式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1984년 10월 十二期 三中全會에서 채택된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중국의 특색을 살리는 社會主義를 건설한다는 요청에 부응하여 대내적으로 경제의 활성화,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강화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경제체제를 탈피하여 社

---

66) 毛澤東, 「中國共產黨全國 宣傳工作會議에서의 講和」, 中共中央 毛澤東選集出版委員會 譯, (中華書店, 東京, 1967), P. 33

김하룡, 「중국문화혁명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5 ) p.102에서 재 인용.

67) 김하룡, 전계서, PP. 152 - 269.

68) “역사결의”, PP. 265 - 266

會主義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第十一期 三中全會는 정당의 중심활동을 경제발전에 돌과 동시에 社會主義 현대화 달성은 경제체제의 개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69)</sup>

鄧小平 體制는 ‘中國式 社會主義’의 건설을 내세우면서도 그들 자신이 ‘中國式 社會主義’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83년 중앙 총서기인 胡耀邦은 ‘최호적 상념’이란 글 속에서 “中國式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일된 답안은 없는가 하고 묻는 동지가 있는데, 그와 같이 미리 설계된 답안은 없다”고 하였다.<sup>70)</sup>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鄧小平 體制는 中國式 社會主義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들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제시된 것이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이라고 할 수 있다.

## 2.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形成

1987년 10월 25일 개최된 第十三期 全國代表大會에서 趙紫楊은 “中國의 特色을 살린 社會主義 노선을 따라 전진하자”라는 정치보고를 통해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역사발전단계에 있어서 현재를 社會主義 초급단계로 규정함으로써 鄧小平 體制가 추진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Joseph Fewsmith에 의하면 社會主義 초급단계의 개념은 1958년 경제학자

69)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 十二期 三中全會, 1984.10.20. 강인덕(편), 「중국 주요논문선집」,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355 - 389

70) 「人民日報」, 1983년 12월 16일자.

인 孫治方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sup>71)</sup> 孫治方은 소유의 두 형태, 상품순환과 가치법칙이 社會主義 초급단계에 있는 사회에서 만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가치법칙은 社會主義와 공산주의 전 기간에 걸쳐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sup>72)</sup> 1970년대 말에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했을때 이론가들은 社會主義의 시대별 분류에 착수했다.

방소지는 1979년에 생산수단의 社會主義 변화에 따라 1950년대 중반에 중국은 미발달된 社會主義 초급단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고, 다른학자도 社會主義는 공산주의의 저급단계의 불완전한 공산주의로서 중국은 아직 社會主義 초급단계에 있다고 하였다.<sup>73)</sup>

1981년 十一期 六中全會에서 채택된 「전국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社會主義 초기단계라는 말이 공식적 당문서에 나타났다.

“우리의 社會主義體制가 아직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했으며 社會主義 사회의단계에 들어섰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어떠한 견해도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社會主義의 기본체계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생산력의 확대와 인민의 이익에 부항하지 않는 특수한 것들을 개혁하고 社會主義에 유해한 모든 활동과 철저히 싸우도록 해야 한다.”<sup>74)</sup>

중국은 아직 社會主義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를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력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71) Joseph Fewsmith, "China's 13th Party Cingress : Explicating the Theoretical Base of Reform:", *Journal of Northeast Asias Studies*, Summer, 1988, Vol 2, pp.44 - 45

72) 상계서, p. 45

73) 상계서, p. 45

74) 「역사 결의」, 앞의 책, p. 264

「역사결의」에서 처음 거론된 초급단계론은 주로 중국의 社會主義 성격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sup>75)</sup>

1982년 12전 회의의 보고에서 胡耀邦은 中國社會主義가 아직 초급단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물질문명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1986년 十二期 三中全會에서 통과된 「정신문명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에서는 중국은 아직 社會主義 초기단계에 처해 있어 노동력에 의해 분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상품경제와 경쟁을 발전시켜야 하고 상당한 역사 시기 내에서는 아직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경제부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6)</sup>

이와 같이 鄧小平 體制는 중국의 현재 社會主義 역사발전단계를 초급단계로 규정함으로써 미발달된 생산력의 증가를 위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정당화 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내의 보수파와의 대립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鄧小平 체제는 개혁·개방정책을 보다 체계화 시킴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

75) 임춘식, 「중국의 현상과 인식」, (서울 : 홍익제, 1989), p. 24

76) 상계서. p. 25

## 第 4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展開過程

중공은 1978년 12월 당 第十一期 三次中全會 이후 실용주의적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中國式 社會主義 경제건설' 과 '2000년대 社會主義 강국건설' 을 목표로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sup>77)</sup>

중공의 경제개혁은 대내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인데 대내적으로는 가격, 조세, 금융, 환율 등 시장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지나는 경직성을 수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외자도입 및 무역제도의 개선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sup>78)</sup>

### 第 1 節 中國의 對內的인 經濟改革

#### 1. 農業部門의 改革

1984년 현재 중공의 총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이며, 도시인구의 비중은 31.9%이다. 따라서 중공이 그 중요성으로 보아 농업부문의 개혁을 우선 실천에 옮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용주의 노선의 본격적인 추진 이래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은 농업부문에 서 일어났는데 이는 바로 집단농장 대신에 '생산청부제' 를 채택한 것이다.

77) 서 동훈, "중공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6.12) p. 52

78) 오진동, "사회주의제국의 경제개혁 실태와 성과분석", (서울 : 국토통일원, 1985.4), p. 24

이 생산청부제는 종전의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 소유제에 기초한 집단농업에서 벗어나 농터를 소집단, 각 농가, 농민에게 할당하여 경작케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고, 이들은 미리 정해진 할당받은 생산량을 공정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후에는 초과분을 자유시장에서 마음대로 팔 수가 있게 되었다. 생산청부제하에서 농민은 여력이 있는경우 할당받은 토지에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를 자유롭게 팔 수가 있다.<sup>79)</sup>

생산청부제를 실시한 후 농촌에서 자유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에서도 사적인 농산물시장이 합법화되었다. 특히, 이들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있으며, 종전의 국가규정 가격만을 모든 상품에 적용하던데 비해서 시장기구를 도입한 것으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83년 현대 생산청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생산대의 수는 전체 생산대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1979년 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시작하여 5년간 기한을 정하였으나, 1984년에 다시 그 기간을 15년 더 연장함으로써 농민들은 더욱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생산청부제의 실시로 농민의 소득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1978년은 농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34.7원이었으나 1984년에는 354.6원으로 2.6배나 증가하였다. 국민소득 농업부문이 점유하는 몫도 1978년에는 35.4%이었으나 1984년에는 44.3%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는 생산청부제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산청부제에 의한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경제개혁의 성공은 더 나아가 도시경제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

79) 정 석영, "중공의 경제개혁". 「중공의 개혁정치」(서울: 법문사, 1989), 법문사. 1989. pp. 77- 78

개혁이 큰 성과를 가져온 반면 소득격차가 생겨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인 소유라는 중요한 공산주의체제의 기본과 서로 상충되는면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80)</sup>

## 2. 工業企業部門

중공은 1979년 7월 '국영기업의 경영 관리 자주권 확대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일부 기업에 대해 자주권을 확대하였다. 그 후 1981년 부터는 '경제책임제'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기업부문의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국가가 정해진 생산자료를 달성하고, 정해진 이윤을 납부하고 난 후에는 초과생산에서 생기는 이윤의 일정한 비율을 기업내에 유보시킬수 있게 되었다.

경제책임제의 실시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의욕이 크게 증대되어 기업이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1978년 공업부문 국민소득이 1,408억이었는데 비해 1984년에는 2,286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경제책임제는 이윤이 많은 재화만을 생산하게 만듦으로써 생산상 불균형이 발생되며, 국가의 세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중공당국은 1983년 6월 부터 법인세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기업은 발생된 이윤의 일정비율을 국가에 납부하고 난 후에는 자유재량에 따라 남은 이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경제계획을 초과해서 생산한 부분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생산상의 자주권도 크게 확대하였다.<sup>81)</sup>

---

80) 상계서, P.78

81) 김 달중, 「중공의 개혁정치」, (서울 : 법문사, 1989.) pp.78- 79

1984년 5월에는 '국영공업기업의 자주권 확대에 관한 잠정협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을 달성하는 한 증산은 자유이며, 계획을 초과한 생산량은 자주 판매할 수 있고, 가격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직접 물자의 구입계약을 맺을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유보자금으로 기금을 설정하여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유휴 고정자산은 임대,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장이 인원배치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자를 공모, 선발, 임면할 수가 있고 능률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등 기업경쟁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자주권을 허용하고 있다.<sup>82)</sup>

이어서 1984년 10월 당 第十二期 三中全會에서는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써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1986년 10월 부터는 그동안 주요도시에서만 실시해 오던 노동집약제를 국영기업의 신규 노동자 채용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공장장 책임제를 널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같이 공업기업부문에서의 경제개혁은 기업의 자주권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3.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의 導入

가격체제와 가격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로 향하는 개혁의 핵심문제이다. 중국공산당 第十一期 三中全會 이후, 주요 농산품의 구매가격에 대폭적으로 인상된 것은 가격체제와 가격관리체제에 대한 전면개혁을 진행했을 때 시작되었다. 국가는 물가조절방침에 따라 전후 37차의 대폭적인 조정과 여러 차례의 소조정이 있었으며, 이 것에는 농업부산물

---

<sup>82)</sup> 상계서, p. 79

가격, 생산재가격, 소비재 공산품가격, 교통운송비 및 관광 서비스비 등이 포함되고 있다.<sup>83)</sup> 동시에 가격관리체제에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격체제의 시행과 가격안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처리는 계속해서 가격개혁이 부딪치고 있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가격체제개혁이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가격관리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상당히 이양하는 것이다. 즉, 국무원 산하의 물가종합부서는 물가정책의 집행, 중요한 소수의 민생물자의 가격만을 결정하고, 기타 다수의 상품가격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종전의 단일 가격체제를 복수가격체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경제개혁 이전에는 국가가 모든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국가규정 가격만이 있었으나, 경제개혁 이후에도 부동가격, 협의가격 및 자유시장가격도 있게 되었다.<sup>84)</sup>

중공은 1979년 11월 일부 농산물, 농부산물, 특산물, 일용잡화 등 1 만개의 상품을 정부의 통제가격으로 부터 해제시킨 이후 1983년 9월에는 일용품 350개 품목을, 그리고 1985년에는 공산품 120개 품목 가운데서 60개 품목을, 그리고 농산물 29개 품목 중 19개를 통제가격에서 해제시켰다. 최근에는 다시 일용품 749개의 가격통제를 풀었으며, 중공은 정부의 가격통제의 정도를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아가고 있다.

---

83) 김인선, "동소평의 개혁 및 개방노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6), p. 53

84) 유통가격은 표준가격을 정해놓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가격변동을 인정하는 것이고, 협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자유시장가격은 농가부산물에서 나타나는 경우로서 일정한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된다.

#### 4. 流通體系

중공은 유통체제가 미비되어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생산지에는 재고가 쌓이는 한편, 소비자에는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의 공장에는 소비재의 재고가 쌓이는 반면에 농촌에서는 소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공당국은 1983년 부터 유통체제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먼저 유통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단일화 시킨 후, 농민들이 곡물, 야채 등을 마차나 트럭에 싣고 도시의 시장에 나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의 말단 유통기구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에서 사기 어렵던 물건을 쉽사리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의 유통체제는 정비하여 국영사업, 집단경영사업 이외에 개인소유의 상업도 인정하였다. 특히 국영사업 중에서 음식, 서비스, 수리업 등의 소매업은 집단청부경영 또는 임대를 통한 개인영업으로 전환시켰다.

즉 1983-1986년 8월의 기간 중 소매점, 이발소, 음식점 등 전국의 10만 여개 소규모 국영상점 가운데 14,000여개를 집단 또는 개인에게 임대시켰다. 특히 최근에는 북경에 있는 7개의 음식점, 이발소, 자전거수리점 등 소규모 국영상점을 공매를 통해서 최초로 개인에게 팔았다.

이처럼 중공은 자유판매와 자유구매의 확대와 더불어 소매업 분야에서 개인영업의 확대를 실험하고 있다.

## 5. 金融制度

중국 금융제도의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이다. 금융개혁의 추진방향이 설정된 것은 1979년 2월 '전국 은행장 회의'에서 '四方面 改造事項'과 '八點 改革措置'가 발표되면서 부터이다.<sup>85)</sup> 특히 이 조치들에서는 인플레이 수습을 위한 '통화의 흡수'가 강조되었다. 1981년 2월에도 국무원은 '여신관리의 강화'와 '통화발행의 억제'를 주요 골자룰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982년 이후 금융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부터 '시장기능 도입'과 '은행경영의 분권화, 다양화'가 주요과제로 등장되었고, 금융개혁도 인민은행에 의한 총체적인 통화·대출자금, 외환의 집중관리와 각 전문은행의 자주적인 금융증개기능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

85) '西方面 改造事項'은 ① 은행경영에 있어 행정적 수단보다도 경제적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 ② 자금집중과 이의효율적 활용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 ③ 생산계획과 재고상품수준보다도 경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대부를 행할 것, ④ 「陰大過飲」(한 술밥을 나눠먹음)식의 은행경영에서 벗어나 독립채산과 경제회계의 원칙에 의해 기업적인 경영할 것 등을 의미한다.

'八點改革措置'는 ① 예금과 대출의 종류를 늘리고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할 것, ② 대출에 있어 국가계획 달성은,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도, 경제계약의 이행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 줄것, ③ 여러 특수은행 「전업은행」과 농촌합작사를 활성화 시킬것, ④ 설비, 기계의 구입을 위한 증장기 설비대출을 허용할 것, ⑤ 모든 여수신을 인민은행이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인민은행의 「통일계획」하에서 각은행이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인민은행의 「통일계획」하에서 각은행이 자율적인 경영를 하도록 할 것, ⑥ 각 은행들을 독립적인 경제단위로 하여 각 지점. 은행의 대부에도 고정금리를 부과할 것, ⑦ 「금융연구소」를 부활, 확충하여 금융발전에 관한 지도를 강화할 것, ⑧ 각 은행간부의 관리와 인사는 인민은행과 지방정부의 이중 관리하에 두게할 것 등이다.

자료: William Byrd, china's Financial System : The Changing Role of Banks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Inc, 1983, PP 58- 60

1984년 이후의 금융개혁에 있어서 심천·하문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금융경영방식의 실험, 대외개방에 따른 외화예금, 대출 및 지급보증업무의 허용, 금융저변확대에 주안점이 주어졌다. 그리고 금융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관련법규·조직의 정비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다.

- 중앙은행의 외국환태환분에 관한 잠정관리원칙(1980.3.19)
- 중국은행의 단기외국환대출원칙(1980. 8.30)
- 중의 합자경영기업여신에 관한 중국은행의 잠정규칙(1981.3.13)
- 중국은행이 공포한 외화예금점과 중국인민화폐의 특별예금규약(1983.1)
- 화교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에 설립한 상주대표기관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관리법칙(1983.2.1)
- 경제특구 내의 중의합자경영은행 관리에 관한 규정(1985. 4.12)
- 중화인민공화국 국고채권할인 조례 및 규칙 (1985.6)
- 중화인민공화국 국고조례(1985.7)
- 중화인민공화국 은행관리 잠정조례(1986.1. 7)<sup>86)</sup> 등이 있다.

특히, 1986년 1월에 공포된 '은행관리 잠정조례'는 중앙은행과 전문은행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함과 통화은행, 대출예금, 금리의 관리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중국 금융기관 운영의 지침이 되고 있다.<sup>87)</sup>

둘째, 금융제도에 의한 경제조절기능의 확대이다, 금융개혁 실시이후 중국은 가격, 환율, 조세, 금리, 신용 등을 경제조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정 범위 내에서 금리, 지불준비율, 재할인율과 같은 간접적인

86) 김익수, "중공경제의 안정성장과 금융의 역할", 『세계경제동향』, 1986, 제4권 제4호, p.157

87) 강 민, "중공의 금융개혁 전개방향과 문제점, 『공산권 연구』, 1987년 8월 p.28

방법을 조정, 운용함으로써 '지향성 신용대출계획'을 보조하여 총체적 신용과 통화공급량을 조정하는 금융의 경제조절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개혁으로 인한 경제조절기능 확대의 결과로 ①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물질적 유인으로서의 기능,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관리하는 기능, ③ 지불준비율 조작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등이 가능케 되었다.<sup>88)</sup>

셋째, 금융업무와 은행내부관리의 개혁이다. 이로써 상품경제의 발전, 시장조절기능의 확대, 경제책임제의 실시 등에 따른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은행의 내부관리면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예금, 대출상품이 개발되었으며, 대출방식과 금융자산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84년 '중국 공업 은행'은 도시주민을 위한 소비자 대출과 주택마련대출을 개발하였고, 소형 개인상공업기업과 집체소유제 형태의 상업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을 개설하였다.

넷째, 증권시장의 부활이다. 지난 1985년 1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상해에서 처음으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또한 같은해 11월에는 상해 및 심천경제특구에 증권회사를 설립하였고, 그후 추가로 다른 도시에서도 증권회사 설립을 허가하였다. 또한 1986년 7월에는 어음교환소도 세웠다.<sup>89)</sup>

이러한 금융개혁정책은 국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타부문에서 시행되

---

88) 고정식, "중공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와 제도개혁", 『세계경제동향』, 1987년, 제5권 제12호, p. 71

89) 강 민, 전개논문, p. 27

고 있는 자주권의 실시를 금융제도내부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 개혁을 더욱 더 가속화 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 6. 企業經營自主權의 擴大

四人幫이 제거된 후 중국에서는 종래와 같은 행정수단에 의한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자신이 독자적으로 경영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978년 7월에는 국무원이 국영기업의 관리체제개혁에 관한 다섯가지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기업의 자주권확대가 본격화되었다. 이 다섯가지 규정이란 「국영기업 자주권확대에 관한 규정」, 「국영기업의 이익유보 실시에 관한 규정」, 「국영기업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사용개선에 관한 규정」, 「국영기업의 고정자산에 징수에 관한 잠정규정」, 「국영기업 유동자산의 은행대부 실시에 대한 잠정규정」등을 말하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①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생산과 제품판매에 대하여 자주권이 있고, ② 생산과 판매에 따른 이익을 기업내에 유보할 수 있으며, ③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기금을 기업내에 유보할 수 있는 비율을 인상하며, ④ 기업은 부분적으로 대외무역권이 있으며, ⑤ 직공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과 처벌에 관한 자주권이 있고, ⑥ 기업내에 직공 대표제를 채택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sup>90)</sup> 이와 같은 기업자주권의 확대는 국가기관과 기업의 관계를 농업부문의 생산책임제와 마찬가지로 상공업부문에 경제적 책임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은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댓가로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이 국가와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임

90) 신 태용, "중공의 경제개혁 배경과 전망", 「공산권 경제」, Vol.1. No.4. 1984. p.22

무를 수행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환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기업의 집단복지 사업비, 직공 상여금, 특수 구제자금 등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sup>91)</sup>

기업경영 자주권확대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개혁은 공장장의 선출방식이다.

종래에는 기업의 상급행정기관에 의해서 공장장이 선출되어 왔고 그 선발되어 왔고 그 선발기준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충실성이 선발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1982년 1월에 공포된 「국영기업의 공장장 활동 잠행조례」에서는 5년 이상의 공장경험을 가진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정치적 이념에 충실한 것 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강조하였던 것이다.<sup>92)</sup>

또한 기업자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직공대표대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1978년 19월의 全國總工會 九次 代表大會에서 鄧小平이 기업의 민주적 관리 방식에 필요와 직공대표기구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 8월에는 鄧小平이 당위원회 지도하의 명령관리체제로 부터 직공대표에 의한 공장장 책임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6월에는 「국영기업의 직공대표회의에 관한 잠정규정」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당위원회가 기업의 방침을 결정하고, 공장장은 생산기술을 책임지며, 직공대표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sup>93)</sup>

이러한 기업경영자주권 확대를 분석 해볼 때, 중국정부가 단순히 자문이나, 감독기관으로 직공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업자주권

---

91) 여운승, "중공의 기업경영 관리개혁과 전개과정", 「중소연구」, Vol. VI, No 1, 1982. p. 10

92) 신태용, 전개 논문, p. 26

93) 여운승, 전개논문, p. 107

확대와 함께 이루어진 직공대표제 도입은 직공들이 부분적으로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양시켜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 第 2 節 中國의 對外的인 開放政策

중국은 1978년 부터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많은 국내제약이 있었다. 순전히 경제적인 개혁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필요로 하지만 국내에서 社會主義를 고수한다는 정치적 필요성은 개방의 한계를 설정해 왔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개혁정책과 불과분의 관계를 갖고 발전되어 왔다.

실제로 이 정책은 경제특구의 설립운영, 해외투자의 유치, 무역의 신장 및 연안발전계획 등에서 잘 나타났으며, 이것이 13년간 실시되어오는 동안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東亞經濟에 통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지역 및 부문간에 갈등 및 불평 등도 초래해 왔던 것이다.

### 1. 中國의 開放政策의 基本戰略

중국은 鄧小平이 주도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대두와 함께 금세기 말까지 국민 총 생산량을 4배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선언하였다.<sup>94)</sup>

이러한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경제계획을 달성하면서 대외개방의 적극추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 레닌주의(Marx

---

94) 중국은 2000년에 국민총생산이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가 목표이다.

- Renin)의 교조와는 달리 체제내적 이질변화와 체제외적 이질변화를 동시에 수용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른바 대외개방에 의한 경제개혁노선이다.

그 첫째가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이다. 즉 상품 경제하의 신 질서 이론이다. 대외개방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태평양 연안 그것도 동아시아 연안으로 이동한다는 「황금연안」이론이다.

이 이론은 최근 王建에 의해 제창되고 趙紫楊에 의해 높이 평가된 국제(경제)대모순론 및 연해개발전략으로 발전된다.<sup>95)</sup>

노동집약적산업이 노동비용이 높아지면 더욱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객관적인 법칙이다. 제 2차대전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은 일본으로 부터 「四小龍 國家」로 이동했듯이 현재 이들 수출주도형 노동집약산업이 중국으로 이동해 올 수 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연해지역은 이들 외국기업과 기술의 가장 알맞는 이전 대상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sup>96)</sup>

이와 같은 태평양시대의 「황금연안」이론에 따라 중국정부는 다섯가지 경제발전 전략을 세웠는데, 그 첫째가 중국내에서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안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낙후된 서부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東靠西移」 전략이다. 그 두번째가 외국의 선진기술, 설비, 자본, 경영관리지식을 연안도시 개방구에 들어와 중국화한 다음 內地로 확산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外引內聯」전략이다. 셋째로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 )이 제시한 전략으로서 상해를 국제금융도시로 개발한 다음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경제교류를 강화하여 외국자본을 내륙자원의 개발에 끌어드린다는 「北進南下」의

95) 王建은 국가계획위원회 계획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중공당 第十三期 全人代에 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96) 김 인 선, 전개논문, pp.63 - 64

전략이다. 넷째의 「三線建設」은 1986년 국무원의 주도아래 중국을 세 지대(동부, 서부, 중부)로 재편성 하여 우선적으로 동부와 서부를 중점개발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七通一平」정책은 연안의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개발함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최우선으로 견지하는 지침에 해당된다. 즉 구름을 깎아 평평히 한다음(1平)전기와 통신과 수도를 통하게 하고 육변과 해변(江) 및 항공을 연결시키며 공기 및 수질의 오염이 없게 하는(7通) 개발전략을 뜻한다.<sup>97)</sup>

그런데 이상의 연해개발이론과 공통된 특징은 한결같이 태평양시대의 도래를 확신하고 예비하는 기본 가정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 경제개발전략의 기본이 되고있는 국제경제의 대모순론은 단순히 연안개발의 정당화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향후 지양해야 할 수출주도형 노동집약적산업의 육성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작 중국측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연안(동해안)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진출하여 그로부터 생산된 상품을 한국 또는 제 3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서남해안 공업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11억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황해를 사이에 둔 두 나라의 개발전략이 그 목표에 있어 상호 배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 2. 經濟特區

경제특구는 홍콩에 인접한 광둥성에서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곧 홍콩으로부터 서방이 자본주의 경제와 연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취해졌던 것이다. 먼

97) 趙紫陽, 「開放沿海地區: 經濟發展問題點報告」, 黨中央會, 1984. 11.

저 상가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深圳, 珠海, 厦門 및 汕頭의 4 곳에 특구가 설립되었다.

1979년 1월 광둥성 당위원회가 경제특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고, 이것은 4월에 당중앙에 보고하여 7월에 마침내 당중앙과 국무원은 광둥 및 북건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 결과 상기 4 곳은 당시 「수출특구」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深圳特區가 1979년 7월에 맨 먼저 출범했고, 그 구내에 蛇口工業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80년 10월에는 珠海特區가, 1981년 10월에는 厦門特區가, 그리고 1981년 11월에는 汕頭特區가 개설되었다.<sup>98)</sup>

#### ① 深圳經濟特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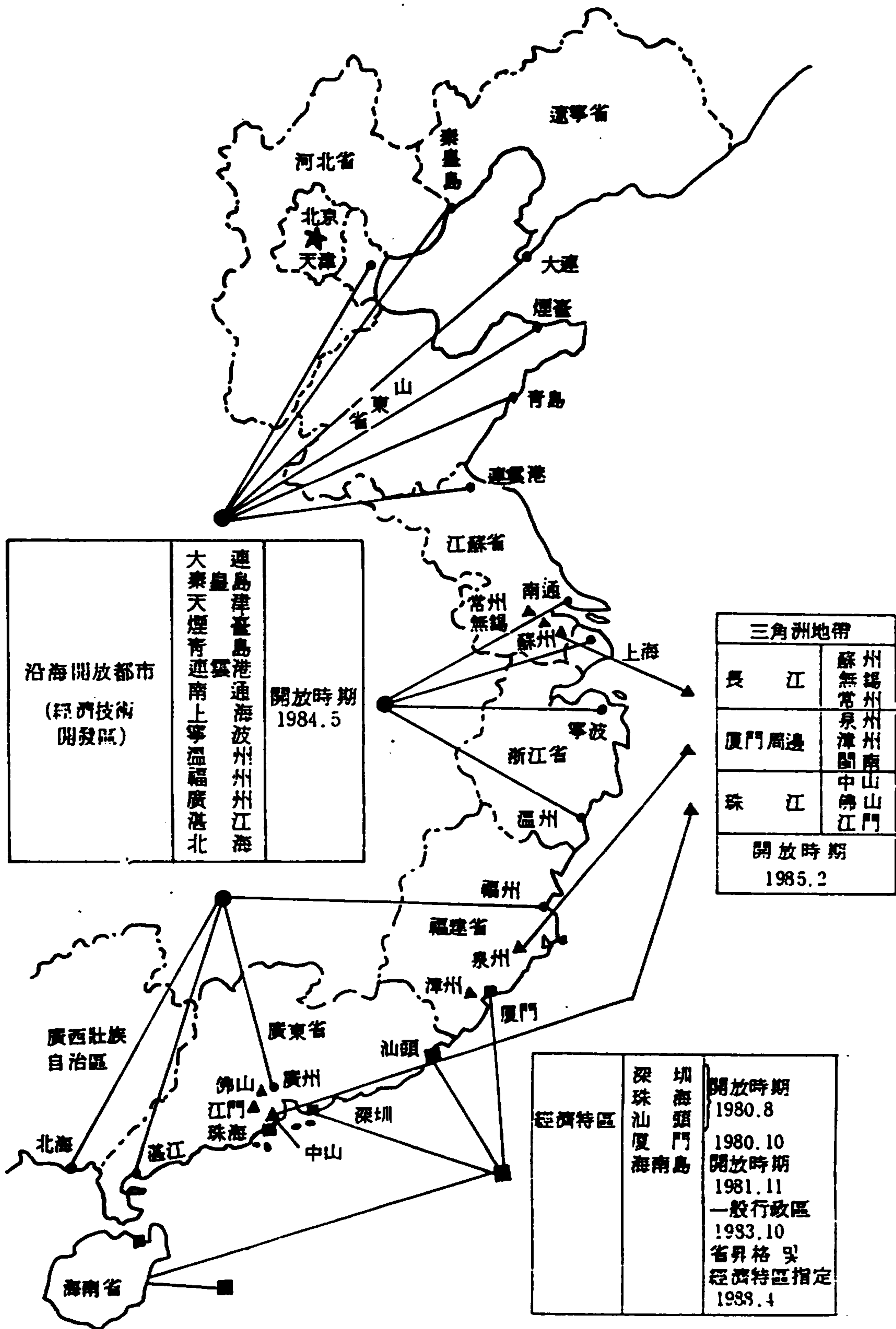
深圳經濟特區는 광둥성, 홍콩에 인접해 있어 1980년 최우선적으로 개발되었다. 총면적 327.6km<sup>2</sup>로 4개특구 가운데 최대규모이며 도시건설 면적이 78km<sup>2</sup>이고 蛇口工業區의 면적은 1km<sup>2</sup>가 조금 넘는다. 이 지역의 교통은 국내 연계보다 대외연계가 잘되어 있고 蛇口工業區를 건설하여 경공업·화학공업·중공업을 위주로 개발하게 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深圳特區의 건설을 위해 1980 ~ 1990년 까지 10년간 244억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기본건설투자, 지출은 해마다 늘어, 1990년 85억元, 2000년 210억元の 공업생산액, 8만평의 근로자, 1500개의 기업과 23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sup>99)</sup>

---

98) 안 병준, 「중국현대화의 정치경제학, (서울 : 박영사, 1992. 9 ), pp. 199- 200  
99) 상계서, p.201.

# < 丑 4 - 1 > 經濟特區의 地圖



註：여기서는 經濟特區, 沿海開放都市와 三角洲 地區의 주요 沿海 經濟開發區만 表示되어 있으며, 沿海經濟開發區에 包含되는 기타 市·縣은 表示되어 있지 않음.

자료 : 產業研究院, 「北方地域國家總覽」, p. 93.

## ② 珠海經濟特區

이 지역은 광둥성. 마카오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15만명에 최초면적이  $6.7\text{km}^2$ 였다. 그후 다시  $15,163\text{km}^2$ 로 확대되었다. 珠海特區 외자도입 현황은 1983년 839건 13억 1,000만 달러의 계약액에 8,000만 달러, 도입 실적은 4억 1,32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의 특징을 당초 관광중심에서 전자, 방직, 기계, 식품가공, 석유화학 공업으로 다양화되었고 동부특구지역은 송전, 급수, 항구, 전신시설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중부와 남부는 약간 늦어지고 있다. 100)

## ③ 汕頭經濟特區

汕頭市는 광둥성에 인접해 있으며, 인구 77만명에 총면적  $245.5\text{km}^2$ 의 도시로서 특구의 면적은  $52.6\text{km}^2$ 이며 龍湖輸出加工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약 2,000개의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1987년 3월까지의 누계 투자총액은 302억 元이며, 공업구, 항만구, 생활구는  $1.02\text{km}^2$ , 농업, 수산구는  $1.5\text{km}^2$  를 건설하였다. 1987년도 외자도입 계약건수는 332건 투자액은 17.52억 홍콩 달러이다. 이 지역의 발전방향은 공업의 기반 위에 농업, 교통, 운수, 여행, 상업, 무역, 부동산업을 발전시켜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 ④ 廈門經濟特區

이 특구는 복건성 중부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10월에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특구를 인정받았다. 당초는  $2.5\text{km}^2$ 이었으나 1984년에는  $13\text{km}^2$

---

100) 김인선, 상계논문 . P. 67

로 확대되었고 인구는 54만명이다. 廈門은 항만조선이 뛰어나며, 남쪽의 광주 및 홍콩의 북쪽에 위치한 상해의 중간지점으로 대만의 고웅까지는 170해리 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대만과 직거래 발판이 될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자, 정밀기계, 정밀화학공업, 경식품공업, 방직, 신형재료 등이며 산업구조는 기술지식 집약형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구 설립이후 1987년 6월 외자투자기업은 267개 회사이며, 77년 6월말 투자계획건수는 267건에 5억달러이다.

### 3. 開放都市와 開放區

경제특구가 확대되면서 그 성과를 내자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개방도시 및 개방구가 연해지대에서 지정되었다. 1984년 4월에 大連, 秦皇島, 天津, 煙臺,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및 北海 등 14개 항만도시와 海南島가 개방도시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5년 2월에는 珠江 델타, (중산, 선산, 강문), 楊子江 델타(소주, 무석, 상주), 그리고 閩南廈漳泉 델타(천주, 위주)등 세 지역을 연해 개방구로 설정하였다. 그 뒤에 동북 지역에서는 遼東半島 및 山東半島가 개방되었다.

이와 같이 개방된 특구와 도시 및 구역 등은 외국으로 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그 지역에서 수출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서방의 기술과 경영을 습득하는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들은 4개 현대화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경영지식을 도입하는 실험장이요 前哨基地로서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에 연계를 심화시켜 왔다. 이들이 모두 연해지역에 위치하여 교통과 통신이 편리한 곳이며 전통적으로 화교가 경제권을 장악해온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인접한 곳으로서 기타 지

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본거지인 광둥과 복건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수준의 인력도 갖고 있었고 화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도 유리한 조건들이다.

#### 4. 外資導入

중국은 선진국으로 부터의 외자도입을 긍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자와 기술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신흥공업부문의 발전촉진, 기술과 관리기술의 고도화, 고용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자를 도입하는 데는 네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sup>101)</sup> 첫째,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분야별 균형에 맞추어 총 외자도입과 그 규정을 확정하고 둘째, 국내여건을 점검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외자를 도입하며, 셋째, 외자도입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넷째, 경제적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등주의와 호혜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투자가의 법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진행해온 외자도입의 실적에 관하여 살펴보면, 외자도입에 있어서,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은행 등으로 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대해 직접투자하는 것이다.<sup>102)</sup>

우선 차관도입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1979년에서 1987년 6월까지 중국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외국으로 부터 중장기의 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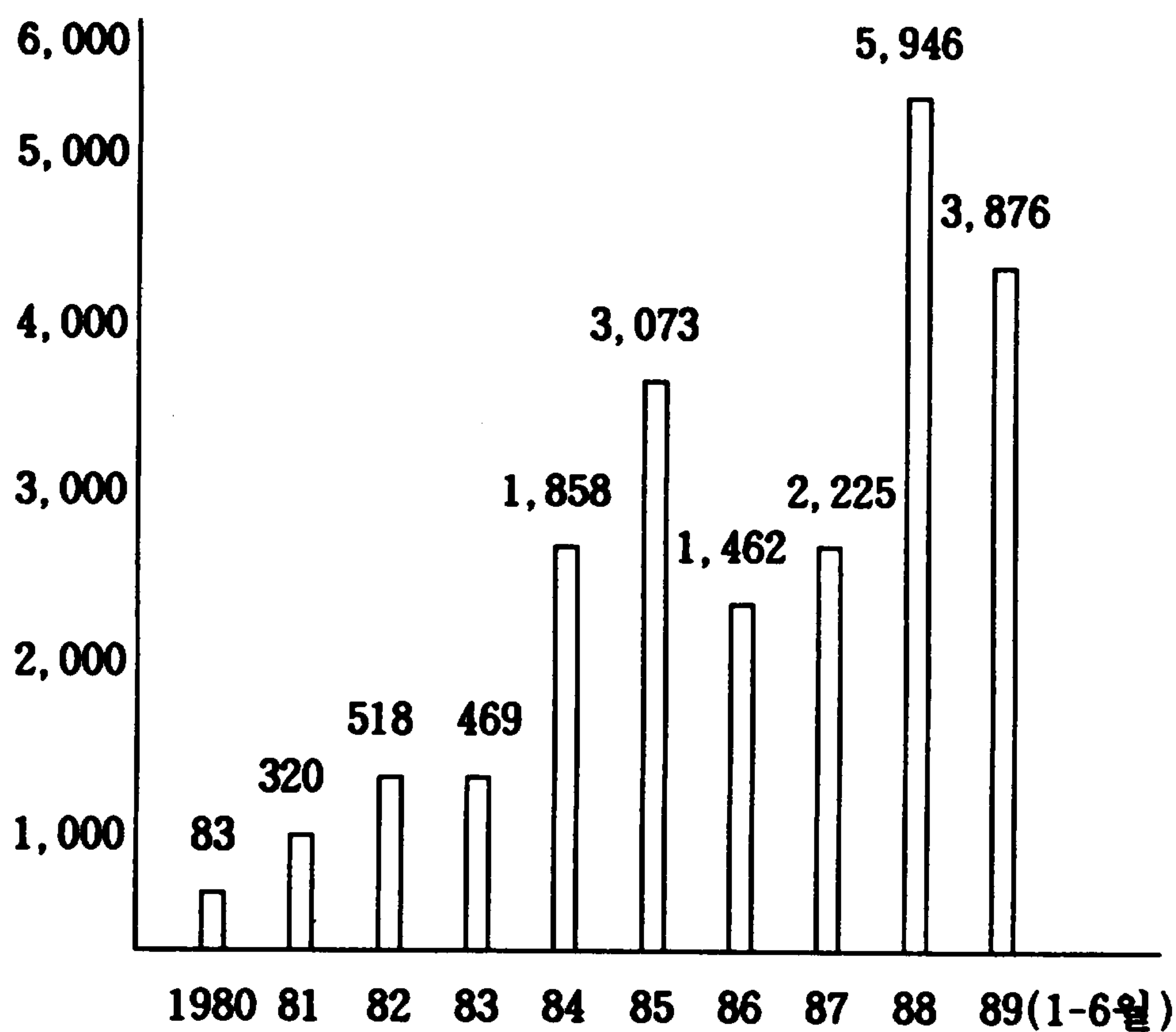
101) 곽 태운, "중국의 개방형 개발전략", 「중소연구」, 1987, 여름, pp. 69 - 70

102) 곽 태운, 상계서, P.150

도입을 했는데 그 액수는 200여억 달러에 이르며, 이러한 차관은 에너지, 교통, 원자재, 공업 등의 건설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차관과 국내자료를 합하여, 30개의 대중형사업을 이룩했으며, 또한 70개의 대중형사업은 건설 중에 있다. 이외에 세계은행의 차관을 이용해서 교육, 위생, 농업, 수리 등의 사업을 수행했으며, 대부분의 차관은 성공적이었다.<sup>103)</sup>

이와 같은 외자도입의 추세는 <표 4-2>에 나타나고 있다.

< 표 4 - 2 > 中國의 外資導入 趨勢



자료 : 中國大會經濟貿易部

103) 王曦東, '我國利用外資的回顧和前 "「瞭望」', 1987.9.28.

다른 면에서 1979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공고한 후에 외국의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합자, 합작, 단독투자 등을 실시했으며, 이와 같은 “3資” 기업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이 경제특구를 설치한 후, 1984년과 1985년에는 14개 연해항구도시와 3개 삼각주지구를 개방함으로써 외자도입 능력이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국가통계국 통계에 의하면, 1979년부터 1987년 6월 말까지 중국정부가 허가해 주었다. 외국상인이 기업에 투자한 것은 8,500여건이며, 외국상인과의 합자에 의한 투자액은 171억 달러이고, 실제 투자한 금액은 50.9억 달러이다. 이외에 해상석유합작개발에 합의한 투자액은 28.6억 달러이고, 실제로 20.5억 달러를 투입했다.<sup>104)</sup>

외국으로부터 차관 이외에도 중국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도입한 외국 투자는 모두 약 70억 달러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 몇 년 동안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에 전략성 투자를 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투자통로가 단일화 되어 있고, 투자영역이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이 중국에 대하여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오로지 시험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년에 걸쳐서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은 홍콩거주자가 다수였는데, 1985년 홍콩으로 부터의 투자비율은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중국에서 이용하는 외자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1986년 홍콩으로 부터의 투자총액 비율은 52%로 낮아졌으며, 1987년 이래 홍콩으로 부터의 투자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것은 외자를 이용하는 통로가 증가하고, 대외개방정책은 갈수록 더 많은 국가에서 수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05)</sup>

중국의 외자도입은 1986년 10월의 「외국인투자 장려규정」의 공포와 외화

---

104) 상계서, PP. 81 - 82

105) 상계서, P. 82

조절센터의 운영으로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1989년 6월말에서 현재까지 19,029건, 즉 312억 달러에 도달했다. 분야 별로는 호텔, 서비스업( 43% ), 에너지 분야( 31% )가 중심이 되고, 경공업, 방직업( 11% ), 전자, 기계( 6% )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 별로는 홍콩, 마카오( 50% ), 미국( 22% ), 일본( 16% ), 유럽( 7% )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sup>106)</sup>

## 5. 貿易制度의 改革

중국은 개혁·개방의 상황하에서 대외무역도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구무역체제는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982년 중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역에 관한 권한을 연안에 접해있는 省, 市, 自治區에 분산해 줌으로써, 이러한 省, 市, 區는 자체가 대외무역을 운영하고 지방재정에 의존하며, 손익을 스스로가 부담하는 방법을 시행해 나갔다. 1982년 국가는 수출입관리위원회, 대외 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국가외무관계위원회를 합병하여 대외경제무역부로 개편했다.<sup>107)</sup> 그리고 1985년에 처음으로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해서, 政·企 분리, 대외무역경영대리제, 공업, 무역의 결합과 같은 기본원칙을 실행했다. 대외무역체제의 초보적인 개혁은 대외무역업무를 촉진함으로써 1985년에는 무역이 40억 달러에 달했다.

趙紫楊은 1985년 8월 수출입생산제도의 수립을 제의함으로써, 국제무역경쟁에 적응하고 생산과 유통을 상호결합할 것을 주장했다. 그 다음해 12월 상해 경제연구소는 무역체제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수출생산제도가 신

106) 이 종 영,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대중국 진출”,

「외무부 외교안보 연구원 - 경대환태평양연구소 주최 세미나」, P. 82

107) 서 보근, “등소평의 개혁노선에 관한 연구 : 이론과 설계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12), P.154

설되고, 국제경쟁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않은 새로운 투자주의와 경쟁주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의했는데 이 의견이 주의를 끌게 되었으며, 1987년 2월에는 “중국대외무역수출협조처”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그 해 대외무역업무는 전면적으로 ‘승포경영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구체제를 철저히 타파했다.<sup>108)</sup> 趙紫楊은 연해지역경제에 대하여 개혁을 진행해서 지방과 기업이 수시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해 중국의 대외무역고는 317억 달러에 도달했다.

중국무역의 대외무역은 개방경제정책의 등장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50년대에 연평균 16.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85년까지 13.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985년 동안 중국의 총 무역규모는 602억 달러에 이르렀다. 무역액 중 수출동향을 보면, 60년대에는 0.9%의 증가율은 보이고 70년대에는 21.6%, 80년대(80 ~ 85년)에는 11.7% 를 나타내고 있어 70년대 이후 수출이 크게 신장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출입 면에서 60년대에 - 0.1%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70년대에는 27.1%로 크게 증가했으며, 80년대(80 ~ 85년)에 들어서 평균 15.4%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수입의 증가속도가 수출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sup>109)</sup> 그러나 1989년대에 중국의 수출액은 525억 달러 (1988년 대비 10%, 49억 달러 증가) 이었고 수입액은 591억 달러 (1988년 대비 7%, 39억 달러 증가)에 달했다.

그 증가분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고 천안문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도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108) “外務全面推行承包制”, 人民日報, 1988. 1. 21.

109) 상계서, PP. 302 - 305

있다.<sup>110)</sup>

### 第 3 節 中國의 政治體制의 改革

#### 1. 黨·政 分離

鄧小平은 1986년 9월 13일 중앙재정, 경제지도자 모임에서 “개혁의 내용은 우선 당·정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어떻게 훌륭하게 지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관건이 된다...”, “나는 당·정 분리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11)</sup> 고 언급함으로써, 개혁에 있어서 횡적으로 당·정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胡耀邦은 “당과 정부의 업무, 기업, 사업단에 있어서 당업무와 생산업무가 적절하게 분리되어야 한다...”<sup>112)</sup>고 말함으로써 당·정 업무와 黨·企 업무의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정 분리의 문제를 둘러싼 鄧小平의 관점은 다음의 네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정 분리는 당과 정부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지 않고, 당이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대한 개혁이며, 공산당의 지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체제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당의 지도를 더욱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sup>113)</sup> 둘째, 당·정 분리는 당과 정부사이에서 성질, 직

---

110) 서 보근, 전계논문, P.155

111)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P.126

112) 胡耀邦, “全面開創社會主義 現代化建設的新局面”, 沈冲等 主編, P.103

113) 黃海, “進行政治體制改革的強大思想武器 - 學習鄧小平同志關於政治體制改革的論議”, 人民日報, 1987. 7. 27.

능, 업무 수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가 자원해서 조직된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당의 조직은 정부도 아니고, 국가권력기관도 아니다. 당은 곧 정부, 기타 국가기구, 기업단위 및 사회단체와의 사이에 조직상의 상하 예속관계도 없다.<sup>114)</sup>

당의 직능은 당정책과 국가의 내정, 외교, 경제, 국방 등 중대한 정책 및 주요간부의 인선을 결정하고, 또한 총지도업무의 수행을 주로 하고 있다. 셋째 당·정 분리는 정치체제개혁의 관건이 되고 있다. 중국정치체제 내에서 존재하는 각종 폐단은 대부분이 당·정 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부터 기인하고 있거나 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예컨대 鄧小平은 “중국의 기구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효율성이 없고, 실업자가 많으며, 업무 풍토가 나태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당과 정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해야할 많은 일을 당이 수행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많은 기구가 중첩이 되어 있다”<sup>115)</sup> 고 언급하고 있다.

넷째, 당·정 분리는 중앙·지방 및 지방하위행정단위의 구체적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의 중앙·지방 및 지방하위행정단위의 각급 조직과 기능이 다르며, 당·정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鄧小平은 중앙과 지방의 두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는 당의 정치적 지도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정부의 직권 범위내의 업무들은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정부에 의하여 토론되고 결정되며, 또한 그들에 의하여 문서가 발송되어야 하고, 당의 중앙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당위원회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결정되어져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하위행정단위의 기업은 점차 당위원회 지도제로 부터 행정수장책임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114) 엄가기, “당정분개적과학합의”, 人民日報, 1987.11.27

115)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P.233

이다. 이러한 단위의 당조직은 행정조직의 업무를 이끌어 나가지 않고, 오히려 감독, 책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sup>116)</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정 분리는 중국 공산당 지도제에 있어서 중대한 개혁이며, 당의 지도적 지위와 작용도 오히려 향상 될 것이고 “黨要管黨”(당은 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을 이룩할 수 있다.

## 2. 權力의 地方分散

鄧小平은 “정치체제개혁의 두번째 내용은 권력이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해결해야하며, 또한 지방각급에 있어서도 권력을 분산해야 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sup>117)</sup>고 언급했다. 이것은 곧 정치체제개혁에서 종적으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된 현상은 행정, 경제, 문화조직 및 군중단체의 권력이 당위원회의 지도급 기구에 집중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군중단체의 권력이 당위원회의 지도급 기구에 집중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지방하위행정단위의 권력이 상급지도기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당지도급기관이 담당해서는 안되고 또한 할 수도 없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하위단위의 자발적인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한편으로는 지방행정하위단위가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며 또한 인민들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 길은 권력분산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sup>118)</sup>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분산의 문제는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즉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② 지방각급 정부들 간의 관계, ③ 정부와 기업과

116) 黃海, 전게서, P. 46

117) 서 보 근, “전계논문”, P. 119

118) 상계논문, P. 119

의 관계이다. 만약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광범위한 통제를 수행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은 충분한 자주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鄧小平은 우선 정부와 기업사이의 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업이 스스로의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강조했다.<sup>119)</sup>

또한 鄧小平은 권력이 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하위단위의 각급 조직에서도 자주권이 없으며, 동시에 의무도 책임도 부여될 수 없게 되고, 하위조직에서는 자연히 적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이 부여되어 적극성을 떨 수 있을 때 그것을 최대의 민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력의 분산은 지방행정 하위단위에까지 확산되어 노동자, 지식인 들도 관리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3. 黨 · 政府機構의 改革

당과 정부기구의 개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첫째, 당에 중앙서기처를 부활하였다. 중앙서기처는 1956년-1966년 사이에 존속하였던 기구로서 문화혁명기간 동안 폐지되었다가 1980년 2월 5中全會에서 부활되었다. 이 기구는 정치국과 상무위원의 지도하에 중앙의 일상적인 당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부서이다.

둘째,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젊은세대를 이용하기 위해 노간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한 조직으로 당과 정부차원에서 설치된 것이었다.<sup>120)</sup> 당 자문위원회는 당의 원로지도자들로 구성되며, 40년이상 당 경력

---

119)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 pp. 120~125.

을 가지고 당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간부지도직무를 종신제로 부터 정년퇴직제로 이행하는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라고 하였다.<sup>121)</sup>

셋째, 기율검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1978년 신설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구성되어 있어서 부패와 정치적 비행을 척결할 독립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하위직관료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나 고위직관료의 조사에 있어서는 심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sup>122)</sup>

넷째, 정부기구에 대한 개혁은 1982년 채택된 헌법에서 인민대표회의 권한 강화, 국가주석제도의 부활, 국무원의 직권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명목상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sup>123)</sup> ① 헌법의 개정과 시행에 대한 감독, ②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률의 제정 및 개정, ③ 선거권-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및 부주석의 선거 및 파면권, 국가주석의 지명에 의한 국무원 총리의 인준, 국무원 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의 인준,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와 그의 지명에 의한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인준, 최고인민법원장의 선거, 최고인민 검찰원 검찰장의 선거,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 그리고 위에서 임명된 직위에 대한 파면권, ④ 예산 및 제계획의 심사승인권-국민경제, 사회개발계획 및 보고된 사업실행상황에 대한 심사 및 승인권을

120) 이 병 회, "동소평체제의 관료제 개혁", 「민족통일논집」, 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집, 1987. P. 97

121) 윤 성 민,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 P. 44

122) 이 병 회, 전게서, P. 95

123) "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62條, 第63條, 1982年. 12月4日  
第 5 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採擇

가지며, 국가의 예산 및 보고된 예산집행상황의 심사 및 승인권 행사, ⑤ 기타 행정에 대한 통제, 조사권-성, 자치구, 직할시 등 구역조정의 승인 및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권, ⑥ 기타 - 전쟁 및 평화의 문제에 대한 결정,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써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기타의 직권등을 갖는다.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당시 주석이던 劉少奇가 실각됨으로써 중국에서 주석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헌법에서 주석제도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신 헌법에 의한 주석은 1952년 헌법에서 규정된 주석과 비교해 볼 때 권한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의 통수권을 갖지 않으며 최고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도 갖지않고 있다. 신 헌법에서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법률공포 및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위원회 주임, 심계장 및 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 특사령, 계엄령, 전쟁상태 선포권 및 동원령 발포권, 외교사절의 접수 및 전권대표의 파견과 소환권, 조약 및 중요협정의 비준권 및 폐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sup>124)</sup>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 한다. 국무원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곳이다.

#### 4. 幹部體制의 改革

1982년 9월 중공 第十二次 全國代表大會에서 통과된 신 헌장은 당간부의

---

124) “中華人民共和國憲法”, 第80條, 第81條

당원 개선방안으로 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등 간부 4화를 제시하였다.

혁명화란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굳건히 집행하고, 당중앙과 정치상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강렬한 혁명사업심과 정치책임성을 지니고, 전심전력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연소화란 나이가 젊고 힘이 세며 패기가 가득하고 번잡한 공작을 이겨낼 수 있는 간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지식화란 일정한 문화정도와 지식수준을 지녀 현대의 자연과학, 사회과학, 관리과학지식을 파악, 응용할 수 있는 간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전문화란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지니고 기술을 이해하고 관리능력이 있고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 충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부 4화안의 제시는 그 동안 당간부 제도 및 당간부 자체에 여러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人民日報」는 간부제도의 폐단 및 결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125)</sup> ① 영도간부의 임용이 부적절하여 비전문가(外行)가 전문가(內行)를 영도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② 간부대우 측면에서 ‘한술밥’을 먹는 평균주의를 채용하여 공작인원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다. ③ 간부의 직무에 있어 ‘식밥그릇’ 또는 종신제를 실행하여 승진제도나 퇴직제도가 건전하지 못하다. ④ 4개 현대화 건설에 있어 지식인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없다.

鄧小平은 “조직상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비교적 젊고 전문지식을 지닌 社會主義 현대화건설에 필요한 인재의 대량적인 배양, 발견, 선발, 이용이 매우 필요하다.”<sup>126)</sup> 고 하였다. 또한 각급간부의 산만한 사상, 고령화, 낡은 문

125) 신 명 순, 박 병 석, “중국정치체제의 개혁과 리더십”,

「중국의 정치체제와 개혁」, (서울 : 법문사, 1992) P. 58

126) 鄧小平, “黨和領導制度的改革”(1980. 8. 18), 「鄧小平文選」, P. 282

화수준, 부패된행위 등 심각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간부의 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를 통해서 간부제도를 개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鄧小平은 간부제도의 개혁을 '체제에 대한 혁명'으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27)</sup>

## 5. 社會主義 民主와 法制

중국 '82 헌법은 '社會主義 民主와 法制'를 명시하였다. 중국이 이를 강조한 것을 문화대혁명 동안 '따를 만한 법이 없고 법이 있되 따르지 않는' (無法可依, 有法不依) 무법천지 상태를 개선하여 인민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 1) 社會主義 民主

중국에서 노동인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를 관리한다는 社會主義 民主가 당이나 정부조직원리로 표현된 것이 '민주집중제'( democratic centralism )이다. '82 헌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민주기초상의 집중, 집중지도하의 민주를 실시하여 민주와 집중을 변증법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지만, 민주와 집중 가운데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다른 한쪽을 부정하게 된다. 민주를 벗어난 집중은 진정한 고도 집중이 아니고, 다만 전체주의, 판료주의, 명령주의, 군국주의를 야기할 뿐이며, 집중을 벗어난 민주를 극단의 민주화나 무정부주의를 야기하고 자산계급 자

127) 編寫組. 「聖持四項基本原則」, (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4년), P. 129

유화에 터를 제공하게 될 뿐이라고 한다.<sup>128)</sup>

중국공산당의 조직원리도 민주집중제이다.(黨章 제10조) 社會科學院 馬列主義毛澤東思想研究所 前 所長 蘇紹智는 이를 비판하여 집중지도하의 민주 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인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29)</sup>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처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조직에 복종해야 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해야 하고, 당조직과 당원 모두는 당중앙에 복종해야 되는 (憲法 제10조 1항)영도체제 아래에서는 당의 일원화 영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당의 일원화 영도' 즉 '憲主' 아래에서의 민주란 균중노선을 상대적으로 개명화하거나 정책결정을 상대적으로 합리화하는 조치로써 개명전제 또는 개명가부장제와 다름없다.

개혁, 개방아래 중국은 문화대혁명시의 '대민주'를 반대하여, 1975년 헌법에 추가되었던 大鳴, 大放, 大辯論, 大字報(Speaking out Freely, Airing Views Fully, Harding great debates, writing big character posters)는 鄧의 건의에 따라 '82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中國은 社會主義 민주화의 인민이 민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社會主義 법제의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2) 社會主義 法制

「社會主義 民主」와 「社會主義 法制」는 중국이 일관하게 소리 높여 제창

128) 編寫組, 「堅持 四項基本原則」,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4) p.129.

129) 蘇紹智. "政治體制改革芻議", 「新華文摘」, 10 (1986년), p.7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제창하는 「민주」와 「법제」는 社會主義的 전제와 한계에 제한받는 것으로 자유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제」와 「민주」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두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社會主義 民主」와 「社會主義 法制」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안정단결이 없이 경제건설을 이룩할 수 없고,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도 이를 수 없다, 국가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의 어느 분야에서도 단지 의지할 법이 있고, 법이 있는 한 반드시 법에 따르고, 법의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이를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한 손에는 건설과 개혁을 움켜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법제를 틀어 쥐어야 한다. 법제건설은 개혁의 전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입법활동을 강화하여 법을 집행하는 활동을 개선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민의 법률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건설은 또한 건설과 개혁의 질서를 보장하고, 개혁의 성과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sup>130)</sup>

이로써 알 수 있듯이 「民主」와 「法制」를 해석 할 때 「독재」와 함께 논하고, 「人民 民主獨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社會主義 民主」와 「社會主義 法制」의 건설로는 진정한 민주와 법제로 향한 소기의 개혁효과를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30) 「政治體制改革講和」, (北京：人民出版社. 1987), pp. 110- 122

법제는 법률과 제도의 뜻이다. 그리고 「主義」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중국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민주」라고 한것은 主義 나 法制에 선행하는 민주 자체의 뜻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중국식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중국의 모든 정치체제개혁의 최대의 한계이자 모순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은 1980년 8월 鄧小平이 당 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근거로 하고 이를 이후 개혁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다.

## 第 4 節 中國의 軍部改革

### 1. 國防現實化의 方向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인 관점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과거 수 십년 동안 국제정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으로 세계전쟁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군부대가 임전태세를 취했으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현대전쟁의 특징과 지구상에서 나타난 모든 국가의 모순을 분석해서, 세계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sup>131)</sup>

이것은 곧 레닌의 전쟁이론으로 부터 탈피함으로써, 중국의 국방전략을 임전태세에서 평화시기의 현대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첫째, 鄧小平이 제시한 국방현대화는 바로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또한 국방현대화와 군대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며,<sup>132)</sup> 모든 힘을 국가의 社會主義 현대화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그는 이것이 곧 국방 현대화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31) 「鄧小平同志. 重要談話」, 人民出版社, 1987. 10. p.14

132) 鄭蘭蓀等 主編, 「鄧小平的思想理論研究」, (北京: 中國書籍出版社, 1988.12.) p. 344

둘째, 중국의 특색을 가진 현대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곧 중국군 현대화의 총 목표인 “현대화, 정규화, 혁명화”를 강조한 것이다.

셋째, 혁명화의 강화를 전략적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중국군이 현대화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도사상이 되는 동시에, 평화시기에 부대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해야 했다. 과거 林虎와 사인방이 군대를 파괴한 중요한 죄상 중의 하나가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며, 즉 “군사훈련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毛澤東의 혁명전선에서 멀어진다.<sup>133)</sup>고 주장했던 것이다. 鄧小平은 이처럼 파괴된 군대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으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sup>134)</sup>고 말하고 또한 그는 “부대훈련은 현대화 전쟁지식과 각종 병력들의 연합작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훈련, 연습을 통해서 각급 간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대화 전쟁지식과 기타 필요한 많은 정치, 문화,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교육훈련을 받은 군대간부들은 군현대화, 지방현대화, 전쟁 등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군대와 지방 현대화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sup>135)</sup>는 이점을 가지는 것이다.

## 2. 軍事改革의 實現

鄧小平이 군개혁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되

133) 鄧蘭菴等 主編, 상계서. p.352- 353

134) 鄧小平, 「鄧小平文選」, 전계서, p. 57

135) 상계서 p.76

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업은 당사업 방침이 변화함에 따라 변경될 수 밖에 없었다. 즉 1979년 10월 2일 徐向前은 “우리들의 국방현대화와 국민경제 발전과의 반드시 상용해야 하며, 우선 국민경제에 급속도의 발전이 보장되어야 한다.”<sup>136)</sup> 고 주장함으로써, 국방현대화와 국민경제발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981년 9월 鄧小平은 화북에서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도중에 중국군은 하나의 강력한 현대화, 정규화에 혁명군대가 되어야 한다.<sup>137)</sup> 고 언급했으며, 중공당 第十二 全大會에서도 이러한 임무를 재차 강조했다.

1983년 4월 중국인민 무장경찰 부대가 설립되었고,<sup>138)</sup> 그 다음해인 1984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철도병부대를 철도부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다.

그후 1985년 5월 23일에서 6월 6일에 걸쳐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중국인민해방군의 금후 2년간 주요임무는 바로 체제개혁과 기구간소화, 제도개편이라고 확정되었으며, 군인원도 100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했다.<sup>139)</sup>

이에 따라서 당중앙위원회의 관할하에서 군체제 개혁을 포함한 군현대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즉 인민해방군 야전군을 집단군으로 개편했으며<sup>140)</sup>, 현(시) 인민무장부가 지방제도로 복귀되었고<sup>141)</sup>, 해방군에서 군사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sup>142)</sup>, 그리고 4개 현대화 방침에 따라서 각급 지도자집단도

136) 徐向前, “爲 實現 國防現代化의 努力 圖”, 1979.10.2. 沈冲 等 主編, p. 533

137) 「鄧小平 文選」 전계서, p. 350

138) “人民武裝警察附帶總部設立” 人民日報, 1983.4.6

139) “中央軍委擴大會議討論貫徹軍隊減少員額的前略 決策”, 人民日報, 1985.6.12. 沈冲 等 主編, 전계서.

140) “人民解放軍野戰軍開建委集團軍”, 人民日報, 1986. 1. 1.

141) “人民部開歸地方建制”, 人民日報, 1986.2.9

조정해 왔다.143)

1986년 말에 이르러 전군은 기본적인 체제개혁과 기구의 간소화, 개편을 완성했으며, 군대제도 설립은 더 한층 합리화되어 갔고, 각급 지도자집단의 “4개 현대화”과정은 뚜렷히 향상되었으며, 부대의 현대화와 정규화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인민해방군은 경제건설에 맞추어 군대와 지방에 병용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갔으며144), 군인들의 문화, 업무자질을 향상시켰고, 더불어 경제건설을 위해 많은 유용한 인재를 배양했다. 또한 지방의 각급단위 정부는 군에서 전역한 간부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며145) 기구의 간소화와 개편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되었다.

1987년 2월 중국중앙위원회는 “새로운 시기의 군대정치공작에 관한 결정”이란 중공군사위원회의 통지문을 발표하여 부대의 사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군대사상정치사업 방향을 제시했다.146) 이것은 곧 개혁, 개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군대에서도 사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4개 기본원칙의 고수, 부르조아, 자유화의 반대, 개혁과 社會主義 현대화 건설의 적극적 참여, 사상, 도덕수준의 향상,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사상의 부대침투방지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강조했다.

142) “解放軍將實行軍士制度”, 人民日報 1986. 7. 5.

143) “全軍高級領導層調整完畢”, 人民日報. 1985. 9. 27.

144) “培養兩用人才工作蓬勃發展”, 人民日報. 1986. 7. 28.

145) “黨政軍通力合作高好軍隊 全業幹部的安置工作”, 人民日報, 1985. 7. 6

146) “關於新時期軍隊政治工作”, 人民日報. 1987. 2. 26.

## 第 5 章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副作用 및 展望

중국의 개혁·개방은 각종 부작용 및 개혁심화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갈등과 거센 민주화 운동 등으로 커다란 곤란에 직면했다. 이와 함께 엄청난 인구의 압력 및 낙후된 문화수준, 봉건적 잔재의 미청산 등은 중국의 사회,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요인으로서 중국개혁, 개방노선을 추진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

### 第 1 節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副作用과 天安門事態

####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副作用

##### 1) 通貨膨脹과 物價上昇

중국에서 통화팽창과 물가상승은 최근에 당면한 중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李鵬은 1989년과 90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을 공업과 농업에 발맞춰 10%이하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특히 이중가격에 이중통화제 및 관료통제 등 전형적인 요소 이외에, 빈곤한 경제조건에서는 지나친 투자, 불건전한 금융기능, 국영기업의 적자증대, 낭비 등 정치사회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것은 물론 1980년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1-2년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관이 개입된 기업의 투기가 급증했고, 또한 1988년 5월 15일 주요 부식품 중에서 돼지고기, 계란류, 설탕, 채소를 가격통제에서 제외시킨 후 돼지고기, 계란류, 설탕은 정량배급제로 바꾸었다. 그 결과 물가는 돼지고

기가 59% 계란류는 28%, 채소류는 2배 상승했으며, 동시에 중국에서 술과 담배를 가격통제에서 제외시킨 후, 유명상표의 술과 담배의 가격은 3배에서 10배까지 급상승했다.<sup>147)</sup>

그리고 중국의 「국가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1988년 상반기 물가는 1987년 상반기에 비해 12.6% 상승했으나, 7월에 들어와서 19.3%, 8월에는 23.2%, 9월에는 25.4%, 10월에는 26%까지 급상승하게 되었다.<sup>148)</sup> 이러한 중국 물가 평균상승률보다 도시의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전 중국 1억 2천 7백만의 도시 봉급생활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실제생활수준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화발행증가율을 보면, 1985년에서 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외국 차관과 국고권의 발행액은 모두 500억 원이고 1988년의 예정발행액은 298억 원이었으며<sup>149)</sup>, 이는 1984년 이래 통화팽창률이 매년 20%에 달했고, 1988년에는 30%를 초과했다.

이러한 통화팽창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집단 구매력의 팽창이며, 사실상 증공의 당정기관과 기업의 구매력은 말한다. 이는 1987년에 553억 원이고, 1988년 상반기에는 368억 4천만 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8%가 증가했으며,<sup>150)</sup> 1988년 1년동안은 700억 원을 돌파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통화팽창이 가속화되는 다른 원인은 국영기업의 거대한 적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적자기업을 돕기위해 40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액수는 공업기업이윤총액수의 1/3이고, 기본건설투자총액의 2/3에 해당된다고 했다.<sup>151)</sup> 이것은 중국이 화폐를 발행해서 적자기업을 지원하고

---

147) 中華週報, (동경: 1988. 12. 24)  
148) 臺北: 中央日報, 1988. 12. 12  
149) 香港: 明報, 1988. 7. 20  
150) 상계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중국의 공업분야의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共産黨 幹部의 不正腐敗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신·구체제 전환기의 헛점을 틈탄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 및 이들과 결탁된 각종 브로커들의 암약은 중국서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러한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사회의 각 영역에 만연하여 자녀의 취직이나 입당, 물자의 배급, 심지어 환자의 입원 등에 까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약영향을 끼치고 또한 서민들의 불만과 분노의 표적이 된것은 경제영역에서의 범죄행위이고 또 고급간부와 그 자녀들의 부정행위였다.

예컨데, 요령성 검찰부는 1988년 간부의 위법사건 737건을 적발, 처리했는 이 중에서 부정, 뇌물거래, 직권을 이용한 이권취득, 낭비등 경제사건은 3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특히 737건의 간부위법사건 중 고급간부의 위법사건은 각 시별로 60-75%를 차지했다.<sup>152)</sup> 또 하나의 예를 보면 1989년 1-3월 중에 절감성 인민검찰원이 조사한 각종 경제범죄는 527건이었는데, 그 중 중대안건은 199건이었고 1만원 이상이 식염, 수락안건은 82건 이었다. 또 구속된 145명의 식염, 수락사범 중에는 당원이 37명, 간부가 96명 포함되어 있었다.<sup>153)</sup>

이러한 부정부패가 도처에 만연되는 기본원인은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적잔재의 영향외에, 계획경제에서 상품경제로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신구

151) 北京：經濟日報，1988. 8. 17

152) Beijing Review, 1989. 7. 17 - 23

153) 黃文國의, “廉政肅貧，清除蛙蟲,” <瞭望> 1989. 5. 22. p. 4

의 양제도가 공존함으로써 직권을 이용한 사리추구와 권력과 금전의 상호교환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sup>154)</sup>

### 3) 分配의 不均衡

毛澤東의 소득분배정책은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농민, 노동자계급 간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집중시켰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체제의 장점으로 분배의 공정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鄧小平의 개혁정책은 선부론과 물질적인 자극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발적동기를 불러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소득분배원칙은 ① 평등주의원리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저해됨으로써 결국 분배의 형평성은 만인의 빈곤이라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②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자극이 필요하다는 점, ③ 소득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분배된다는 것이다.<sup>155)</sup> 이러한 분배정책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鄧小平의 개혁, 개방정책은 장기간 평등주의 분배를 주장해온 중국에 대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분배정책은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소득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소득의 격차 내지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즉 1983년 농민의 수입은 도시의 직원과 노동자의 1/3이고, 농민 1인당 소비는 비농민의 반이다. 그리고 도시의 직원, 노동자는 식량, 주택비, 사회보장, 복지 등 각종 보조를 받고 있다. 1978년 이것은 임금의 82%에 해당했고, 이를 임금에 가산하면 농·공업간의 격차는

154) 서 석 흥, “중국의 가격개혁과 물가 문제”, pp. 8 - 9 : 전 성흥, “상업브로커의 불법 전매행위”, <중국시장정보>, 1988. 11 pp. 64 - 68

155) 安錫敎, “中國의 經濟開發理念”, 『中蘇研究』, 1987. 여름, p.26

5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sup>156)</sup>

그리하여 분배정책에 따른 소득격차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중국경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4) 失業問題와 社會的 不安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무관리 면에서 노동계약제를 1980년 10월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국영기업체에 적용해 왔다. 중국의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1985년 국영기업의 신규채용 80%가 3년에서 5년간의 계약제가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장차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중국의 농촌에서는 적어도 1억명에 이르는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도시의 국영기업 가운데는 2천만에서 3천만에 이르는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다<sup>157)</sup>

또한 금세기 말까지 노동력은 연평균 2%의 증가율을 보여 인구증가율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제 7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약 1억명의 고용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제 6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약 4천만명의 고용기회가 마련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예상된 계획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 노동의 고용과 해고권을 부여하는 노동집약제가 확대될 경우 실업의 압력은 심화될 것이다.

1989년 중국대륙의 실업률은 총인구의 3.5%이상으로서 3,800만명의 도달

---

156) 상계서, p. 27.

157) 藤井彰治, “中共經濟四十年的軌跡與病根”, (1989. 5), p. 59

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sup>158)</sup> 1989년 말까지 중국대륙 실업률은 총인구의 4% 이고, 이는 곧 4천만의 실업노동자이라는 것이다.<sup>159)</sup> 또한 「爭鳴」의 통계에 의하면 전중국의 실업노동자와 농민은 모두 1억명에 달하며, 그중 5,000만은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했으며,<sup>160)</sup> 또한 중공당 기관지인 人民日報는 6천만에서 8천만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sup>161)</sup>, 이들은 물론 실업자의 일부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실업자는 중국사회를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 2. 민주화運動 과 天安門事態

### 1) 天安門事態의 發生

1989년 1월 반체제 물리학자 方勵之는 鄧小平에게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월과 3월 지식인단체와 41명 과학자의 공동연명으로 재차 정치범의 석방요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권청원운동은 3월말 부터 정부를 불신하는 수도 북경 대학생들로 하여금 공산당의 일당독제를 공격하고 다당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4월15일 학생들에 의해 민주주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된 전 공산당지도자 胡耀邦의 망제일을 계기로 그를 애도하기 위해 천안문에 운집한 학생과 시민들이 정부에 또다시 자유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4월

---

158) 世界日報, (New York : 1989. 12.19)

159) 周紀祥, 「江澤民的喪求, 悲嘆與無奈」, 臺北 : 中央日報, 1990.1.13

160) 爭鳴雜誌, 臺北, 1989.12. p.29

161) 人民日報, 1990.2.4 및 周紀祥, 「中共 第十三期 五中全會至 六中全會的經濟形勢與政策」, 「中國大陸研究」, 1990. 5. pp.42 - 43

24일 개최된 정치국 상임위원회에서 鄧小平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의 동기가 당을 전복하려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이른바 “三不伯運動”(즉 ① 국내반용을 두려워하지 말 것, ② 외국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말 것, ③ 유혈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전개토록 지시를 내렸다.<sup>16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중국공산당을 탄생시킨 5.4 운동의 70주년기념을 맞이하여 이 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함께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현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한 학생들은 거리를 뛰쳐 나와 정부당국에 언론의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찍이 연간 27%의 높은 물가 상승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개혁, 개방정책이 실행된 후 당·정의 관료형 부패에 불안을 품은 수 많은 노동자들도 학생시위에 가담함으로써 북경시위사태는 급기야 상해, 서안, 무안 등 전국 각지의 중요 11개 도시에 까지 확산되었다.<sup>163)</sup>

다음날 10만 명이 넘는 천안문광장의 시위군중의 핵심은 학생들이었고 이에 동조한 노동자와 일부시민들까지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와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부패척결의 문제를 들고 시위하였으며, 이들 데모 학생들은 “우리가 정부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운영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당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 부패, 관료주의에 대해서이다.” 라고 하며 공산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방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관의 투기가 나라를 붕괴시킨다.”(官倒必國倒)라는 구호로서 정부관리의 부패의 척결과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한 뒤 1,000명의 일부학생들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지도자와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에 돌러갔

---

162) 등소평은 “11억 중국의 20년의 국가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20만명을 처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馬仲可, 전계서, p.195.

163) New York Times, May 5 - 6, 1989

었다. 이러한 소요속에 5월 16일 부터 30년간 적대관계로 공식적으로 청산한 소련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의 3일간의 역사적 북경방문도 단식투쟁중인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희망한 개혁자 趙紫楊 등의 입장을 강화시켰다. 더욱이 이같이 중대한 시기에 당총서기 趙紫楊은 그의 정적 李鵬총리가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위학생대표들을 만났던 것과는 달리 직접 천안문광장에 나아가서 단식농성중인 3000명 학생중 일부를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늦게 찾았다”는 등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sup>164)</sup>

그러나 데모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불안울 조성한다는 우려와 함께 농민의 지지로 수립된 정권이 농민으로 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곧 그들이 공산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최고정책자 鄧小平은 5월 20일을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진압명령을 내렸다.<sup>165)</sup>

계엄령 선포와 군대투입 결정은 보수, 개혁양파의 분열 가운데서 보수 강경의 승리를 뜻했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요구를 민주와 법제,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하여 헌안을 해결토록 주장한 趙紫楊은 즉각 권력이 박탈되었다.

이때 미국을 방문하던 개혁파의 전인상임대표 만리는 급귀국하여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으나<sup>166)</sup> 사태는 일찍이 개혁·개방의 대원칙에는 동의하나 정

164) 『大公報』, (香港), 1989年 5月 19— 第 1 版

165) New York Times, May 20, 1989.

이 계엄령은 1990년 1월 11일 7개월만에 해제되었는데, 이같은 조치는 6.4 유혈사태로 철수한 외국상인과 외국의 투자를 다시 불러들여 중국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축소하여 당면한 경제파국을 타개하려는 교육책이었다.

166) 『東方日報』(香港), 1988년 7월 14일, 第五版

萬里는 “사건의 주요원인은 당내에 있고, 특히 지도층에 만연된 관료주의의 부패상황은 심각한 정도”, 라고 강조하였다. 『북방동향』, (1990.11), p. 39

제개혁만은 경제체제의 소폭수정과 조정을 주장해 왔던 진운을 지지한 李鵬 등 보수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중국의 민주화 장래를 극히 비판적이 었다.

계엄령이 북경지역에서 발효되어 이날 교외 5개 도로에서 시내로 진입을 시도한 군부대 병력을 실은 수십대의 수송차량, 장갑차, 무장전차 그리고 경찰차를 태운 수십대의 트럭 등이 백만이상 규모의 데모학생과 군중에 의해 저지 당하였다.

“ 천안문 광장은 이제 중국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었다. ”고 한 20세 북경대 학 사학과 학생 지도자 王丹이 말했듯이 7주간 계속된 민주화와 부패척결을 외치는 학생, 근로자의 시위와 이를 지지하는 북경시민 마저 “ 인민군대는 인민을 사랑한다 ”는 유화적인 전술로써 군대의 시내진입과 무력사용을 억제케 함으로써 군인과 경찰이 중립적 태도를 취해 사실상 계엄령 대행에 어려움이 뒤따랐다.<sup>167)</sup> 그러나 절대명령의 보수강경파는 군부지휘관들의 문열 속에서 6월4일 새벽을 기해 수십 대의 장갑차, 탱크, AK-47소총으로 무장한 제 27군대 수천의 병력을 천안문 광장이 진입시켰다. 수도 중심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기관총과 탱크로 무방비 상태의 학생을 밀어 붙여 수백명 학생과 노동자를 부자비하게 살해하고 수천 명을 부상시킴으로써 새로운 지도부의 부도덕성을 나타냈다. 천안문사태가 진압된 후 중국정부는 학생과 민간의 사상자나 행방불명자의 숫자를 밝히지 않고 오직 군인과 경찰들의 희생자만을 밝혀 군대와 경찰력에 얼마나 가혹하였고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조직적 반대가 얼마나 어려운가<sup>168)</sup> 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

167) Bernard Gwertzman & Michael T. Kaufman. The Collapse of Communism (Random House, 1990) 번역판, 강효성, 「공산주의 이렇게 무너지다」,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pp. 79 - 91

168) 상계서, pp. 90 - 133

있고 또한 6.4사태는 일찍이 毛澤東의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철칙을 개인식 시켜준 사례라는 점에서 중국 정치사가 「一治一亂」週期說 169)이란 특색을 가졌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2) 天安門事態 以後 權力, 理念, 政策上의 變化

6.4 천안문 사태 이후 鄧小平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던 胡耀邦과 趙紫楊의 몰락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력이 강력해진 보수자를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인물의 선택을 통해 中國特色的 社會主義의 ‘經濟反在, 政治反右’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鄧小平의 구상은 먼저 그가 선택한 江澤民이 ‘절충적 인물’ 170)이라는 점, ‘타협적인 성격’ 171)을 지녔다는 점, 그리고 그의 사상적 편력이 鄧小平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鄧小平이 구상은 1989년 6월 16일, “새로운 영도계층은 江澤民을 핵심으로 하여야 하며, 누구도 불복종해서도 안되며,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172)고 언급한 사실과, 현재 당내의 여러문제들을 모두 시끄럽게 하지 말 것이며, 총서기를 선출하는 문제는 필히 논쟁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2-3년 후에나 할 것이며, 지금은 조용하길 바란다.” 173)고 함으로써 천안문 사태

---

169) 중국의 역사중에는 일종의「一治一亂」의 주기설이 있는데 그것은 약 2 - 300년 통일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1,2차 小虐殺이 있고 2 - 300년이 지나면 또 1차의 大虐殺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준엽, 「중국최근세사」 (서울 : 일조각, 1976), pp.124-125 참조

170) 「文匯報」(香港), 1987년 6월25일

171) 「明報」(香港), 1989년 6월26일

172) 「文匯報」(香港), 1989년 6월28일

173) 상계서

이후 강화된 보수파의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鄧小平은 李鵬 주도하의 '治理·整頓'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sup>174)</sup>을 배경으로 1989년 11월 6일 당 十三期 五中全會에서 보수파를 제압하고 江澤民 중심의 중도노선의 기초를 다졌다. 이는 第十三期 中全會에서 숙청당한 趙紫楊이 사후처리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지도부 내의 이러한 권력투쟁의 지양과 중도인물의 선택에 따라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을 社會主義 견지하의 안정 확보에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영역에서는 李鵬의 "烏籠經濟思想"<sup>175)</sup>에 기초한 治理·整頓 政策이 계속 실행되었다. 먼저 정치영역에서 중국지도부는 정권 및 체제안정을 위한 복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社會主義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선전공작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통제와 毛澤東 思想

174) 十三期 五中全會를 전후하여 나타난 경제현상을 보면 (1)공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떨어져 작년대비 성장률이 0.9%에 지나지 않으며, (2)국영기업의 효율이 저하되어 1989년 9월말을 기준으로 볼때 98억 인민폐나 되어 작년대비 1.2배에 달하고 있으며, (3)고정자산의 투자약화로 인하여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1989년 1월 부터 9월까지 7.2%로써 목표인 20%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며 (4)시장에 불경기로 1989년 8월을 기준으로 볼때 시장소매가격은 작년 대비 0.7%나 떨어져 개혁 10년이래 처음으로 저 성장이 나타났으며 (5)물가의 상승으로 1989년 1월과 9월 사이의 물가상승률은 작년대비 22%나 상승하고 있다. "中共「五中全會」決而難行, 中共問題資料週刊", No 391 (1989년 11월 3일), p.33.

175) 陣雲의 烏籠經濟思想은 시장경제적 요소는 어디까지나 계획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 테두리 안에서만 도입. 실천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며, '무량 축난'이라는 보수주의적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陣雲의 烏籠經濟思想은 소련식 計劃經濟에서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이 장기적으로 고군분투해 온 자력갱생의 상황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陳德昇, "중국의 경제개혁에 관한 보수, 개혁파의 시각", 「IPECK북방경제」(1991.5), PP. 45- 51 참조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서방세계의 사상, 문화, 정신적 침투를 방지하는 3반 투쟁과 반자산계급 자유화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社會主義 이념과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인물(雷鋒)과 단체들의 정신에 관해 학습할 것을 각급단체 및 기관에 지시하였다. 둘째, 인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한다는 취지하에서 과거 毛澤東 시대에 행해졌던 '군중조선'을 1990년 3월에 열렸던 당 13기 중앙위 6차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 실행하여 당·정·군 간부들을 사회기층 단위에 내려보내 기층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운동을 벌였다. 셋째, 각급 행정기관, 군, 사법기관, 사회단체, 기업, 농촌 등 모든 분야에서 당의 통제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조직의 건설을 강화했고, 당원 재등록작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당·정 이미지 개선을 위한 부패일소 및 기강확립운동을 벌여, 차관급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나 해직을 행하였다. 넷째, 반체제 세력 및 민주화 요구세력, 소수민족 독립요구세력에 대한 공안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집회, 시위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발표하고 "文革"직후에 사라졌던 수도민병대를 재조직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군사교육과정 이수률 의무화하고 대졸자의 직업을 과거처럼 국가가 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국지도부는 천안문사태 이후 동구공산권의 공산주의 포기과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정치사상운동과 집체주의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9년 12월 30일 "中國共產黨領導的多黨合作政治協商制度及意見"을 제기하였다.<sup>176)</sup> 이 다당제 합작안은 제 민주당파의 합작과

---

176) 「人民日報」, 1990년 2월8일, "中共 中央 關於堅持和完善中國共產黨領導的多黨合作和 政治協商制度的意見"의 번역문과 「光明日報」 1990년 6월 1일자에 실린 '중국의 사회주의 정당제도' (我國的社會主義政黨制度)는 다음을 「中蘇研究」, 제 14권 3호 1990.9. 가을), PP.177- 188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방향, 즉 ① 정기적으로 '민주협상'을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② 인민대표대회 상무위나 상설 전문위 등을 통해 민주당 파들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활동을 보장하며, ③ 그들이 각급 사업기관에서 영도적 직무를 담당하도록 직책을 부여하고, ④ 政協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毛 思想 마르크스-레닌 사상은 물론 국가정책과 방침을 학습토록 하여, ⑤ 자체적인 조직과 사상을 강화하도록 적극협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에서 "중국은 인민민주독재의 社會主義 국가로서 공산당은 社會主義의 지도적 핵심이며 집권당이다.

제 민주당파는.... 일부 社會主義 노동자와 애국자를 옹호하는 정치연맹으로 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며, 동시에 쌍방의 합작은...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토대하에 상호공존, 상호감독하며... 社會主義 사업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친밀한 우당이며 참정당이다"고 명시함으로써 서방자본주의 국가의 다당제나 양당제 그리고 일부 社會主義 국가의 일당정치제도와도 다른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치제도<sup>177)</sup>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경제영역에서도 중국지도부는 1988년 10월 十三期 三中全會에서 채택된 '治理·整頓' 정책을 천안문사태 이후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며,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중앙의 계획성과 통제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지도부는 첫째, 국가계획위원회에 감독과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을 피하기 위한 생산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둘째, 거시미시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鄉鎮(농촌 기업) 기업의 폐쇄와 통합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지도부는 개혁·개방 10년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 지방 보호주의 확산과 중앙의 거시적 통제력

177) 大公報, 1989년 10월 12일, 李先念의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회회의에서의 발언참조 : 張公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개혁정치", 「국제 정치논총」, 제30집 2호(1990), P. 279 재인용

약화, 다원 분배상의 혼란, 중앙재정적자의 심화 등 경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중국지도부는, 긴축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경제속도를 하향조정(5-6%)하고 물가상승 억제, 지방 자율권의 축소, 우선 산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경사정책등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治理·整頓政策으로 인해 경제의 지방분권화, 시장가격 구성비율의 확대 민간경제부분의 확대등을 위한 경제개혁에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선택적 부분적으로는 개혁 개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토지종합개발 경영' 잠정규정과 저작권법의 제정, 선물거래교역과 증권거래소 개설 등 외국자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방 측면에서도 상해 포동개발구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강 유역을 개방중심지구로 육성함으로써 '개방 제 2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天安門 流血鎮壓과 西方의 制裁

중국이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1978년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대서방 정책은 평화적 국제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중국의 4대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의 도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서구제국, 일본등과 대외경제 및 기술관계를 맺고, 교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1987년 6월 천안문 유혈사태가 발생하면서 서방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에 책임을 물어 외교관계의 축소, 고위급 판사의 왕래와 회담중단 및 단기간 상호관계가 동결하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관과 교역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서방 여러 나라

의 제재는 1989년 6월의 천안문 유혈진압에 대하여 인권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행하여졌다. 그리고 이 문제를 미국 인권외교의 정면적인 도전으로 생각하고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다. 이에 대하여 방려지 부부가 미국으로 망명해 오자, 중국은 그들을 반혁명분자라고 낙인 찍었으며,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경의 반혁명 난동에 개입해서 반혁명분자로 하여금 중국정권을 전복하도록 돕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했다.<sup>178)</sup> 미국은 6월 4일 천안문 대척살이 발생했던 다음날 부시 대통령은 1984년 이래 실시해 왔던 무기판매와 기타 중국 군과의 합작, 훈련을 중단키로 했으며, 1988년에 비준했던 8500만 달러의 군용, 상업, 기술의 계약도 연기할 것을 발표했고<sup>179)</sup>, 또한 차관도 중단했다.

구주경제 공동체(EEC)에 속하는 12개국 외상들이 모여서 중국 고위지도자들과 접촉을 피할 것과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차관, 무기수출, 과학기술 합작의 금지를 결정했으며 또한 대공상권 수출 통제 조정 위원회 (COCOM)에서는 중국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sup>180)</sup>

그러나 일본의 천안문 유혈 진압사건에 대한 반응은 처음에는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일본인들이 중국으로 부터 신속히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반면에 일본의 수상과 외상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거대한 중국시장과 채권국으로서의 그들의 입장을 의식한 나머지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또한 일본은 1978년 7월 파리에서 열렸던 7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더욱 심한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그러나 1989년 7월 일본의 전외상인 伊東正義가 중국을 방문해서 鄧小平을 접견

178) 尹慶燾, “天安門 6.4 慘案的 影響”, 『中國大陸研究』, 1989. 9. p. 5.

179) 상계서, p. 6.

180) 葉伯棠, “天安門事件後 中共的外交動向”, 『中國大陸研究』, 1989. 11. p. 6.

했을 때, 鄧小平의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중국 언어에서 7개국 정상회담에서의 중국에 대한 발언을 비난했고, 또한 서방의 제재를 두려워 하지않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sup>181)</sup> 이후로 부터 중·일 관계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sup>182)</sup>

이와 같이 1989년 천안문 유혈진압에서 나타난 인권문제로 인하여 서방과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상당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중국이 외교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한걸음더 나아가서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과 4개 현대화의 수행에 대해서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면의 개혁과 더불어 자유화와 민주화에 부합하는 정치적개혁도 추진 되어야만이 4개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 第 2 節 中國의 改革·開放政策과 展望 및 韓·中 關係

### 1.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展望

중국의 경제개혁, 대외개방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정기를 거쳤지만 적어도 천안문사태 이전까지도 심화, 확대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6월의 천안문사태는 그때까지 낙관시되던 중국경제의 개혁전망을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만들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중국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정책추이를 주의깊게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第十三期 七中全會는 향후

---

181) 상계서, p.7.

182) 상계서, pp. 5-6.

중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黨 第 13 期 7中全會는 몇차례 연기된 끝에 1990년 12월 말에 개최되었다. 同會議에서는 '제 8 차 5 개년계획' 및 '10개년계획의 기본방침을 제시한 『建議』(『中國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八·五”計劃的建議』)가 채택되었다.<sup>183)</sup> 이어 1991년 4월 第七期 全人代 4차회의에서 『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第八介五年計劃綱要』가 통과되었다.<sup>184)</sup> 이로써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治理·整頓의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제시된 8·5계획 및 10개년계획의 기본방침은 중국의 향후 개혁·개방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국 지도부내의 경제정책방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절충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부문별로는 개혁지향적이라는 점이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정책의 전체 기조에 있어 지속, 안정, 협조를 견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제고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十三期 三中全會, 五中全會에서 결정된 '治理·整頓, 改革深化' 방침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8·5계획 초기에는 治理·整頓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체제를 개혁을 계속추진하고 社會主義 제도의 보완,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확대, 발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대외개방의 기본방침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외무역에서는 수출확대와 외화수입 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심화를 강조하

183) 人民日報, 1991.1.29.

184) 人民日報, 1991.4.16.

고 있다. 외자이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활용을 거듭 확인하는 가운데 합리성과 경제적 효능을 지향할 것임을 또한 밝히고 있다. 대외개방에서는 沿海經濟發展前略을 관철할 것임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대내방사적 측면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해 포동지구개발을 향후 10년 동안의 중심적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8·5계획 및 10개년계획의 기본방침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향후 개혁·개방정책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경제정책기조에 있어 당분간 경제의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면서 단계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建議」 및 「綱要」의 절충적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 중국지도부 내부에서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결코 개혁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정책기조의 초점은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분간 중국은 치리정돈과 개혁심화를 절충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것이지만 점차 개혁심화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85)</sup>

둘째,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정책기조는 대내적인 경제체제개혁의 경우에 비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명제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은 대내적 개혁과 달리 세계경제동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외부적 여건에 의해서도 크게 규제 받는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그 내용과 속도에 있어 대내적인 경제체제개혁에 비해 보다 적극적일

---

185)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1991년에 국가체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經濟體制改革十年規劃八五綱要」임. 이에 관해서는 「中國經濟體制改革」, 1991년 7월호, PP. 6 - 24 CKAWH.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문사태를 전후해 사용되지 않았던 「沿海地區經濟發展前略」이 다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상해 포동지구경제계획을 향후 10년간의 중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향후 예상되는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외무역에서는 수출확대와 무역역조 개선을 통해 외화수입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방국가들의 수입제한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상황하에서는 수출상품구조 및 지역별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접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력화에 대응해야 하는 정책과제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국내 기술수준과 설비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연해지구경제발전전략을 계속 관철시키는 가운데 내륙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지역별 성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0년 12월에 黨 第十三期 七中全會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전반적인 흐름은 일개중심, 즉 경제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二個 基本點 (改革·開放과 四個 基本原則)에서 개혁·개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지도층의 발언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江澤民 당총서기는 1991년 9월 중앙공작회의에서 “지금은 경제건설을 중심업무로 하고 다른 업무는 중심업무의 완성에 복종, 봉사, 기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sup>186)</sup> 楊尙昆 국가주석도 1991년 10월 辛亥革命 記念式에서 “모든활동은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에 복종해야 하며 봉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은 개혁·개방의 위대한

186) 人民日報, 1991. 10. 22.

성과의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187)</sup> 또한 1991년 8월 소련 구테타가 발생한 후 대두된 姓社姓資論爭<sup>188)</sup>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대외개방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더 높은단계로 이행되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혁·개방의 확대, 가속도가 순조롭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파와 진중파 사이의 갈등요인 극복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발전격차 해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社會主義 경제의 접합이 가지는 모순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2. 韓·中 關係의 懸案과 展望

1992년 8월 24일, 드디어 중국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그 대외정책의 시각에서 정의된다. 한·중 관계의 쟁점과 전망도 중국과 한국의 대외 환경에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환경을 선호한다.

한국도 국내에서 정치 및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에서 김정일의 권력계승을 정당화하고 침체하고 있는 경제를 재생하기 위하여 실제로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해 왔다.

187) 人民日報, 1991. 10.10.

188) 개혁·개방의 본질이 사회주의적인가, 자본주의적인가와 관련된 論爭.

중국의 경제개혁은 미·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의 개방 및 실용주의적인 관계의 계속을 요하지만 천안문사건 후 국내정치의 보수화는 서방국가들의 사상 및 영향력에 대하여 경각심을 재고할 것을 요한다. 이처럼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남한과 더 많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더 많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해야 하고, 「社會主義」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공동전선을 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189)</sup>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1992년 2월 「화해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시킨 뒤에 정상화가 되고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및 남북사찰을 허용하며 일본 및 미국과 관계정사와 또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과 국교 정상화로 단행한 것이다.

한·중 수교가 완성되기까지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정·경 분리」정책을 견지했다. 즉 한국과는 가능한 한 경제 및 문화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일종의 동반자 관계를 추구했고 북한과는 종래의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하고 구소련에서 공산당과 연방이 와해한 뒤 중국은 천안문사건 이후 서방국가들로 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우호 및 유대관계를 결성하려고 안간힘을 다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에 돌발적인 충격을 주어서 그것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인식되는 행동은 피하면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시해 왔고 동남아 국가들과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 노력이 일환으로서 중국은 UN 및 亞·太 經濟協力(APEC)과 같은 다변적기구와 경제교류에 있어서 한국과도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을 점진적으로나마 확대해 왔

189) 안병준, 「중국현대화의 정치경제학」, (서울 : 박영사, 1992.9.), p.282.

던 것이다.

다만 중국이 對 韓半島政策을 정의할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은 鄧小平과 같은 원로들이 내렸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대만에 대하여 「一國兩制」정책을 지속하여 국내에서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옹호하는한, 이 원로들은들의 국내정책, 對 臺灣政策, 그리고 北韓의 對 日本 및 美國政策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기도할 것이다. 주은래가 일찍이 말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새친구를 위하여 옛친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1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계속하는한 한국과 무역·투자 및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및 미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하여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성취하게 된 것이다. 사실 對 北韓關係를 제외한다면 중국은 월등히 많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요약,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韓 關係, 北韓의 對 美·日 關係, 中國의 對 臺灣 關係가 개선되고 다시 경제개혁을 심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한국과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국교정상화까지도 진전시켜 왔다.

둘째,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인 동맹국으로 대우해 왔고, 이 때문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외교 및 통일정책을 지지해 왔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거나 그 체제가 불시에 와해되는 것은 중국 자신의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에 구소련이 남한과 수교한 뒤 북한

---

190) 상계서, p.283.

은 중국에게 밀착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내외정책과 북한의 내외정책간에는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양국간에도 긴장상태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자신과 같이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社會主義 체제를 정통화하기를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원래 국내경제발전에 필요한 무역, 투자 및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과 경제 및 문화교류를 추진했고, 영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역사무소를 1991년에 개설했으나, 그 뒤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자 한반도에서의 평화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여 1992년 8월에 마침내 수교를 결정했다. 한·중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양국은 각기 상대교역국으로 만들어 왔다.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및 국교정상화는 한·중간의 핵 확산금지 및 군비통제 등에 대한 안보 및 외교적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여 줄 것이다.<sup>191)</sup>

넷째, 한·중 관계가 정상화한 후 양국간의 교류 및 협력이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접촉 및 교류의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서 중국은 비단 쌍무관계에서만 아니라 亞·太地域 전체에서 한국과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을 성사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인접 국경지역에서 다변적인 경제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은 이 지역의 상호의존된 경제발전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은 이와 같이 평화, 번영 및 안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

191) 상계서, p.284.

## 第 6 章 結 論

1976년 9월 毛澤東이 사망한 후, 2년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중국은 1978년 12월 공산당 第十一期 三中全會 이후 개혁정치라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하에서 농업·공업·과학기술 및 국방방면의 4개 현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삼음으로써, 1949년 이후 중국의 낙후된 경제발전을 위하여 생산력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한 성장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개혁노선은 정치·사회·문화 및 대외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의 대담한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개혁론자들은 과거 이데올로기와 정책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개혁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인 것이다.

그리고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은 「4개 현대화」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건설을 이룩하려고, 中國式 社會主義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 경제체제의 개혁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노선의 본격적인 추진아래 일어난 농업부문, 공업·기업부문, 및 가격체계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그리고 유통체계와 금융제도를 개혁하고 행정수단에 의한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자신이 독자적으로 경영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업 경영자 주권의 확대 등이 있으며,

둘째, 정치체제의 개혁은 당과 정부의 업무, 당업무와 기업업무가 적절하

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당·정 분리, 권력을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해결해야하는 권력의 지방분산, 당과 정부기구의 개혁 및 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등 당의 개선방안인 간부체제의 개혁이 있으며, 무법천지상태를 개선하여 인민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社會主義 民主와 法制 등이 있다.

셋째, 군부의 개혁에는 중국의 특색을 가진 현대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자는 국방의 현실화의 방향과 강력한 현대화의 정규화의 혁명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군개혁의 실현등이 있다.

넷째, 중국 개방정책에 있어서는 ① 경제 특구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개발된 深圳經濟特區, 마카오 인접지역에 위치한 15.163km<sup>2</sup>의 珠海經濟特區 광둥성에 인접한 52.6km<sup>2</sup>의 汕頭經濟特區福建省 중부연안에 위치한 13km<sup>2</sup>의 廈門經濟特區가 있으며, 14개의 개방도시(大連, 秦皇島, 天津 煙臺 青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및 北海와 海南島)와 珠江 델타 (中山, 仙山, 江門), 楊子江 델타(蘇州, 無錫, 常州), 閩南廈漳泉 델타(泉州, 漳州), 遼東半島, 山東半島의 5개의 개방구가 있다. ② 외화도입. ③ 무역 제도의 개혁 등이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鄧小平은 개혁정치 가운데서 경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타분야의 개혁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에 있어서는 경제개혁이 핵심이 되며, 그 중요한 목적인 중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적 분야에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社會主義 體制의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보수 개혁파, 세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개혁도 진행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거처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제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면 보수개혁파 세력이 개혁·개방정책에 강한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을 보면 통화팽창 물가상승, 분배의 불균형, 당간부의 부정 부패, 실업문제와 사회적 불안 등의 문제해결이 경제개혁에 있어서 승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도 단순히 경제적인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계층들이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됨으로서 보수파의 일대 반격에 부딪혀 중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서방세계와의 교류와 접촉이 확대되고 서구의 문물이 소개되면서 「정신오염」의 문제와 「자산계급자유화」사조에 대해 급진개혁파들을 비판·견제하면서 보수파들은 개혁주도 세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였다. 이같은 정치적 대립상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시위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충돌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천안문사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일단 개혁의 심화를 주장하던 趙紫楊을 비롯한 개혁파들 중 다수가 제거되었으며, 1978년 「十一期 三中全會」이후 추진되었던 개혁·개방정책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안정과 단결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하면서 급진개혁파를 당과 국가기관에서 정리하고 江澤民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지도체제하에서 부분적으로 민주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社會主義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명백히하고 천안문사태를 야기된 중국의 국제적 위신과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천안문사태를 초래하게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한 천안문사태로 미·중 관계를 비롯하여 서구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천안문사태 이후 약간 냉각되는듯 하다가 한국은 소련과의 수교와 1991년 1월말 중국무역대표부 개설에 의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 대외 개방을 추구하기 시작한 1979년 중 부터 한·중간의 간접교역이 본격화 되었으나 북한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은 한국이 희망하는 공식관계에는 극히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실리적인 교역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더욱이 북한이 유엔에 한국과 동시가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어지고 있으며, 남·북한의 간접교역방식이 한계를 지적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자원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1993년 5월 26일 한승주 외무장관과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은 서울에서 북한 핵문제만을 주제로 「특별회담」을 가졌는데 중국이 희망하고 있었던 미·북한 간의 고위접촉이 일단 성사됐으며, 우리측에 요청했던 중국의 유엔 안보리결의안 거부권 불사용에 중국이 적극 협조함으로써, 양국간의 공감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전 기침 부장이 북한 핵문제를 갖고 「특별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국이 북한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회담은 한·중간

의 「공동보조약속」이 간접적이고 묵시적으로나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북한이 미-북한 고위급 회담과 안보리 경제체제 결의안 채택 등 예정된 수순아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놓았다는 것이며, 곧이어 총영사의 설치와 항공에 대한 협정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 1. 國 內 文 獻

### 1) 單 行 本

1. 김 달 중, 「중공의 개혁정치」, (서울 : 법문사, 1989)
2. 김 하 통, 「중국문화 혁명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5)  
—— 「중국 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84)
3. 백 경 남, 「국제관계사」, (서울 : 법문사, 1987)
4.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중국정치 경제사전」, (서울 : 민음사, 1990)
5. 안 병 준, 「중국현대화의 정치경제학」, (서울 : 박영사, 1986)
6. 이 문 규, 「현대 중국 정치론」, (서울 : 인간사랑, 1988)
7. 임 춘 식, 「중국의 현상과 인식」, (서울 : 홍익제, 1989)
8. 정 상 구, 「현대중국의 정치와 외교」, (서울 : 내외신서, 1990)

### 2) 論 文

1. 강 민, “중국의 금융개혁 전개방향과 문제점”, 「공산권 연구」, 1987. 8
2. 강인덕 (편),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중국주요논문선집」,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8)
3. 강 지 환, “중공의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평화연구」,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제12집, 1987)
4. 김 의 수, “중공경제의 안정성장과 금융의 역할”, 「세계경제동향」, 제4권, 제4호 1988.
5. 김 인 선, “동소평의 개혁 및 개방노선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

-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6)
6. 김 하 룡,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적 사회주의”, 『아세아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8. 7)
  7. 김 호 길, “중공문화 대혁명의 발달배경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제 6집 (부산외국어 대학교, 1988. 2)
  8. 서 동 훈, “中共의 經濟改革에 관한 研究”, (서울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2)
  9. 서 보 근, “鄧小平의 개혁노선에 관한 연구 :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2)
  10. 서 석 흥, “중국의 가격개혁과 물가문제 : 상업브로커의 불법전매행위”, 『중국시장정보』, 1988. 11
  11. 신 명 순, 박 병석, “중국정치체제의 개혁과 리더십”, 『중국의 정치체제와 개혁』, (서울 : 법문사, 1992)
  12. 신 태 용, “중공의 경제개혁 배경과 전망”, 『공산권 경제』, Vol 1 No.4, 1984.
  13. 여 운 승, “중공의 기업경영 관리개혁과 전개과정”, 『중소연구』, Vol. VI, NO. 1, 1982
  14. 안锡敎, “中國의 經濟開發 理念”, 『中蘇研究』, 1987. 여름
  15. 오 진 동,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개혁 실태와 성과분석”, (서울 : 국토통일원, 1985. 4)
  16. 윤 성 민, “中國社會主義 초급단계론이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
  17. 이 병 희, “鄧小平 體制의 官僚的 改革”, 『민족통일논집』,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 2집 , 1987)

- 18.이 종 영,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대중국 진출”, 「외무부 외교안  
보연구원 - 경대환태평양 연구소 주최세미나」
- 19.장 송 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개혁정치”, 「국제정치논총」.제30  
집 2호, 1990.
- 20.정 석 영, “중공의 경제개혁”, 「중공의 개혁정치」 (서울 : 법문사, 1989)

## 2. 中國文獻

### 1) 單行本

1. 高 向 果,「中共對外關係的發展」,(台北:正中書局,1978)  
——「共產經濟問題論集」,(台北):國際問題研究所,1984  
——「中共經濟」,(台北:正中書局,1987)
2. 關 中,「美國外交與對話政策」,(台北:幼獅文化事業公司,1977)
3. 鄧 小 平,「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增訂本),(香港:三聯書店,1987)
4. 毛 澤 東,「中國共產黨全國宣傳工作會에서의 講和」,中共中央毛澤東選集 出版委員會 譯,(東京:中華書店,1967)
5. 尹 慶 燿,「中共外交與對外關係」,(台北:中華民國國際關係研究所,1973)
6. 鄭 蘭 蓀,劉 鵬 主編,「鄧小平思想理論研究」,(北京:中國書籍出版社,1988)
7. 鄭 竹 園,「中共經濟的診斷」,(台北:聯合出版事業公司,1980)
8. 周 紀 祥,「江澤民的喪求 悲嘆與無奈」(台北:中央日報,1990)
9. 編 寫 組,「堅持四項基本原則」,(北京:解放軍出版社,1984)
10. 岡 部 達 味,「中國近代化の政治經濟學」,(東京:PHP研究所,1989)

### 2) 論文

1. 鄧 小 平,“黨和領導制度的改革”,「鄧小平文選」,1980. 8. 18  
—— “四つの基本原則を堅持しよう”,「鄧小平は語る」,上卷,  
—— “政治式發展民主 經濟上實行改革”,「現代中國の基本問題について」,(北京:外交出版社,1987)

2. 毛澤東, “矛盾論”, 『毛澤東著作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86)  
—— “在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上的講和”, 『毛澤東 선집』 第5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7)
3. 徐向前, “爲實現國防現代化의 努力 奮闘”, 1979. 10. 심증 등 주편
4. 蘇紹智, “政治體制改革芻議”, 『新華文摘』 1986. 10
5. 엄가기, “당·정 분개적, 과학합의”, 인민일보, 1987. 11. 27.
6. 葉伯棠, “天安門事件後中共의 外交動向”, 『中國大陸研究』, 1989. 11
7. 王曦東, “我國利用外資的回顧和前”, 『瞭望』, 1987. 9. 沈沖等主編
8. 尹慶燿, “天安門 6.4 慘案的影響”, 『中國大陸研究』, 1989. 9
9. 이천민, “鄧小平論”, 『第7屆中·日中國大陸問題研討會專輯』, (台北: 政治大國際關係研究所, 1979)
10. 趙紫楊, “沿着有中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中國共產黨第13次全國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1987)  
—— “開放沿海地區經濟發展問題點報告”, 黨中央會, 1984.
11. 郝致誠, “中共「十二大」路編述評” 『非清月報』, 第二十五卷 第四期, (台北: 國立政治大國際關係研究所, 1982. 10)
12. 周紀祥, “中共第十三期五中全會至六中全會的經濟形勢與政策” 『中國大陸研究』, 1990. 5
13. 黃文國外, “廉貞肅貪, 清除蛀蟲”, <瞭望>, 1989. 5. 22
14. 周恩來, “國民經濟的調整工作和當前任務”, 『周恩來選集』, 下卷 (上海: 人民出版社, 1984)  
—— “發展國民經濟的主要任務” (1964. 12 21), 『周恩來選集』 下卷 (上海: 人民出版社 1984)

- 15.黃 海,“進行政治體制 改革的強大思想武器 - 學習鄧小平同志關于政治體制改革的論議”,『人民日報』,1987. 7. 27
- 16.胡 燿 邦,“全面開創 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沈中 等 主編

### 3. 新聞雜誌 及其他

「 人 民 日 報 」		1978.	10.	10
「 人 民 日 報 」		1983.	4.	6
「 ” 」		1983.	12.	16
「 ” 」		1984.	12.	7
「 ” 」		1985.	2.	1
「 ” 」		1985.	9.	27
「 ” 」		1986.	1.	1
「 ” 」		1986.	2.	9
「 ” 」		1986.	7.	5
「 ” 」		1986.	7.	28
「 ” 」		1987.	2.	26
「 ” 」		1990.	2.	8
「 大 公 報 」	(香港)	1989.	5.	19
「 ” 」		1989.	10.	12
「 大 匪 報 」	(香港)	1989.	6.	25
「 ” 」	( ” )	1989.	6.	28
「 經 濟 日 報 」	(北京)	1988.	8.	17
「 明 報 」	(香港)	1988.	7.	20
「 ” 」	( ” )	1989.	6.	26
「 New York Times 」		1989.	5.	5
「 ” ” 」		1989	5.	19
「 ” ” 」		1989.	5.	20

「	中	華	週	報	」	1988.	12.	24
「	東	方	日	報	」	1988.	7.	14
「	韓	國	日	報	」	1993.	5.	27
「	東	亞	日	報	」	1993,	5,	26

#### 4. 英文資料

1. Baun, Richard. ed. Chinas Four Modernizations : The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Colorado : Westview press, 1980)
2. Camilleri, Joseph, Chinese Foreign policy : the Maoist Era and it After month(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0)
3. Fewmith, Joseph, "China's 13th party Congress,explicating the Bases of Reform, "Journal of Northeast Asias Studies, Summer, 1988, Vol, 2 .
4. Harding, Harry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83)
5. Houm, Franklin, A Short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Engle 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Inc, 1967)
6. Macliarquher, Roderick Farquher, The Origi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I Contradictions among the people 1956~1957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7. Meisner, Maurice, Mao's China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
8. North, Robert, C , The Foreign Relations of china (Encino CA: Diken-son publishing Company Inc, 1974)

# A b s t r a c t

## A Study on the Reform of China

Duck Sung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Passing 2 year transition period upon Mao's death on Sep.1976, China faced a tremendous turning point called reform politics in all field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ince 11th People's Congress of the 3rd Party Convention on Dec.1978.

Under this reform politics, China put its primary national goal at economic growth by modernizing agricultural, industrial, scientific technologies, and national defence and exerted all possible efforts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its under developed economy since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t Government in 1949.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China achieved an outstanding development in economy and this reform line affected a big change in other fields such as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foreign policies as well.

They came to realize that radical reforms should be made in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for better reforms and open policies. In fact, reformists used to try to develop their own reform theories by criticizing severely established ideology, policies and institutions. We can call this "theory of Early Stage in Socialism."

Deng Xiaoping's reformative open Policies characterize both economic construction and establishment of Chinese socialism through modernization in 4 fields as stated above.

His reformative open policies feature followings;

First, Reforms of Economic System includ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reforms which already inspired by the promotion of real practicalism. They include introduction of price and market economy with the reforms in distribution structure and financial system Larger allowance of enterprise ownership is also included to enable the management to deal with their own matters for themselves without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structure.

Second, Reforms of Political System target the separation of party and the Executive based on the proper division of their affairs.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tructuring of party and government organs are equally required.

They also try to reshuffle party executives through revolutionization, orientation toward younger generation of party leadership, intellectualization, and specialization.

Socialistic emocracy and laws are needed to control the people's state

of extreme disorder, to improve the public order an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Third, Reforms of the Military aim realization of national defense for modernization of Revolutionary Forces with Chinese character and military reforms for strong Revolutionary Forces with modernization and regularity.

Fourth, Chinese open policies diversify economic special district, introduction of foreign capital and reforms of trade system.

Economic special districts have such five open zones as Simchun Special District that was developed with priority. 12,183 square kilometers of Juhae Special District near Macao, Wumun Special District with 52.6 square kilometers near Canton and 13 square kilometers near central seaboard of Fukien, 14 open cities (Daeyun, Jinwhangdo, Chungjin, Yundae, Tsingtao, Yungunhang, Namyong, Shanghai, Yungpa, Onju, Fuzhou, Guangzhou, Gikang, Pukhae, Haenamdo) and 5 open areas of Jukang Delta, Yangtzechiang Delta, Namha Changcuh Delta, Yodong Peninsula and Shantung Peninsula.

Among above open policies, Deng Xiaoping's priority was on the economic reforms. But these reforms caused various serious problems like currency inflation, price rise, disproportion of distribution,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party executives, unemployment, and social stability. Accordingly, reformative open policies faced a strong counter-attack from conservative who pressed the radical reformists to stop or slow down

these policies and who took advantage of these economic side effects politically.

The last, student demonstration demanding democratization escalated into Tianmun incident.

Many of reformists including Chochiyang were removed from the power after Tianmun incident. China, under the new leadership of Chianzemin, accepted a portion of democratization demands and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of socialistic system.